

産業革命의 概念—研究史的 考察

金 宗 炫*

目 次

- I. 序 言
- II.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의 定立
- III.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에 대한 批判
 - 1.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의 否定
 - 2. 産業革命 概念의 多樣化
- IV. 産業革命 概念의 現代的 再構成
 - 1. 先驅的 試圖
 - 2. 經濟成長史學과 産業革命 概念
- V. 結 語

I. 序 言

第2次大戰 以後 經濟史學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課題의 하나는 近代的 經濟社會 形成의 歷史的 契機로서의 産業革命(The Industrial Revolution)의 究明에 있다고 해도 결코 過言이 아닐 것이다. 물론 産業革命의 諸問題에 관한 論議는 産業革命期에 이미 많은 批評家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事實이다.⁽¹⁾ 또한 그에 관한 學問的 研究도 토인비(A. Toynbee) 以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歷史를 가지고 展開됨으로써 그것이 經濟史學의 重要한 課題로서 認識되어 왔고 그 속에서 많은 研究業績들이 나타났다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오랜 研究史를 前提로 하면서도 近來의 産業革命에 관한 經濟史家들의 一般的인 關心度는 過去의 어느 時期의 그것 보다 높고 또한 그에 관한 研究業績도 過去의 어느 때 보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1) A.J. Taylor, "Progress and Poverty in Britain, 1780—1850: A Reappraisal," *History*, Vol. XLV, No. 153, February 1960, p. 16; R.M. Hartwell, "Interpretation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A Methodological Inqui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IV, No. 2, June 1959, pp.236-9; 拙稿, "産業革命과 勞動者의 生活水準—論爭史的 展望—", 經濟論集, 第X卷 第1號, 1971年 3月, 1~6面 參照.

이와 같이 産業革命에 관한 關心이 커지고 또한 그에 관한 研究가 經濟史學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課題로 認識되면서 새로이 展開되게 된 데에는 그에 對應한 學問的 및 現實의 背景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指摘될 수 있는 것은 第2次大戰後의 世界 經濟秩序의 再編成과 더불어 先進工業諸國의 經濟成長 내지 衰退 그리고 新生 獨立諸國의 經濟開發 내지 工業化라고 하는 相互關聯되는 두 가지 問題가 現實的인 問題로서 提起됨으로서 經濟成長 및 發展에 관한 研究가 理論的으로만이 아니라 歷史的으로도 크게 刺戟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問題는 理論的 研究의 對象인 뿐만 아니라 그 自體가 長期에 걸친 經濟發展 過程에서 나타나는 近代的 經濟成長이라든가 近代的 經濟社會에로의 轉換 또는 工業化라고 하는 歷史的 問題인 만큼 바로 歷史的 認識의 對象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近代的 經濟成長이 이루어질 수 있는 基盤으로서의 近代的 經濟社會에로의 轉換의 問題는 歷史的으로는 바로 産業革命의 問題인 것이다. 다음으로 指摘될 수 있는 것은 理論과 歷史가 共通한 認識對象을 가지게 되었다는 事情과 함께 認識方法에 있어서도 相互「接近」내지 「統合」이 試圖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傳統적으로 經濟史에 있어서는 長期에 걸친 經濟發展過程이 生成 發展 衰退라고 하는 全體的인 發展構造를 中心으로 研究되어 왔고 한편 經濟理論에 있어서는 短期靜態的인 問題가 主로 研究됨으로서 兩者 間에는 研究의 對象에 있어서나 接近方法에 있어서 큰 距離가 있었다. 그러나 經濟理論의 認識對象이 短期的인 經濟變動의 問題에서 長期的인 經濟成長의 問題로 그 中心이 移行되고 또한 認識方法도 短期的 靜態理論에서 長期的 動態理論으로 發展됨에 따라 理論의 歷史에 對한 關心은 커지게 되었다. 그것은 經濟成長論에서 經濟發展의 要因으로서 究明되는 人口增加, 技術進步, 資本蓄積 등 經濟的 諸要因과 企業家 活動이라든가 制度 文化 一般 등 非經濟的 要因들이 바로 經濟史에서 다루어져 온 問題들인 만큼 理論側에서도 歷史的 研究成果를 注目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²⁾ 이렇게 해서 理論과 歷史의 「接近」내지 「統合」이 積極적으로 試圖되었다.⁽³⁾ 그러나

(2) 하아트웰은 經濟史家는 오랫동안 成長의 問題에 關心을 가져왔으나 經濟學者들은 100年 以上이나 그것을 無視해 왔다고 指摘하고, 第2次大戰以後에 經濟學者가 또 다시 A. 스미스의 主題 즉 成長의 問題에 關心을 돌리게 된 理由로서, 하나는 케인즈革命 또 다른 하나는 低開發國의 問題를 들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結果는 經濟史에게 重要한 것이었다. 이제야 歷史는 過去의 經濟成長에 관한 큰 情報源을 供給함으로 經濟學者에게 有用한 것 같다. 成長에 관한 이들 經驗主義者들은 어느 程度까지 經濟學에서의 歷史學派를 蘇生시켰다. 同時에 그들은 특히美國에서 經濟史에서의 보다 理論的인 學派를 刺戟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R.M. Hartwell,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1971, pp. 133-4.

(3) 이와같은 方向에서 先驅的인 役割을 한 業績으로서는 무엇보다도 S. Kuznets, "Statistics and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History*, I, 1941; do., "Statistical Trends and Historical Change,"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ies, Vol. III, 1951; W.W. Rostow,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1952; do.,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962.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業績들을 前提로 해서 1957年의 美國經濟史學會大會에서는 "經濟理論과 經濟史의 統合" (The Intergration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ic History)이라고 하는 共通主題下

그러한 理論과 歷史의 「接近」 내지 「統合」에서 보다 큰 衝擊을 받은 것은 歷史 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經濟史에서는 經濟成長論에서 定立된 精密한 理論의 諸概念과 數量的 分析 方法(quantitative method)을 導入하면서 經濟史의 理論的 再構成과 數量的 實證을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傳統的인 그것에 대해서 現代經濟史學이 크게 「成長史學」이라고 하는 性格을 가지면서 發達하고 있는 것은⁽⁴⁾ 이와 같은 背景에서이며 바로 그와 같은 背景에서 近代的 經濟成長의 「始動」 또는 出發에의 歷史的 契機로서 「産業革命 또는 工業化」에 관한 問題의 認識이 學界의 中心的 課題로서 새로이 登場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産業革命에 관한 研究는 成長史學의 據頭와 함께 그의 가장 중요한 課題로서 오늘날의 經濟史學에 있어서 中心的인 位置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現代經濟史學에서 그와 같이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는 産業革命은 어떠한 意味內容을 가진 것인가? 이러한 質問에 對해서 우리는 産業革命 研究가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반드시 明確하고 統一된 解答을 얻을 수 있는 狀態에 있지는 않다. 오히려 産業革命에 관한 研究가 進展되고 그의 研究成果가 累積되면 될수록 産業革命의 意味內容은 더욱 多樣하게 把握되는 傾向마저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歷史過程 또는 史實을 하나의 概念으로 性急하게 類型化해서 認識하는 歷史學派的인 歷史研究方法은 이미 克服된지 오래고, 보다 實證的인 研究方法이 一般的으로 利用되고 있는 속에서 歷史認識의 多樣化는 한편 不可避한 現象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實證的 方法을 取하면서도 그것에 埋沒되지 않고 그것을 基礎로 해서 一般化 또는 類型化한다는 것은 歷史認識을 돕고 또한 歷史研究를 前進시킬수 있는 方法으로 慎重하면서도 積極的으로 試圖되어야 할

에 W.W. Rostow, "The Interrelation of Theory and Economic History"; J.R. Meyer and A.H. Conrad, "Economic Theory, Statistical Inference and Economic History" 등이 發表되어 이 大會의 討論을 要約하고 問題를 指摘한 S. Kuznets, "Summary of Discussion and Postscript" 와 함께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VII, No. 4, 1957에 掲載되었으며 뒤이어 1960年 大會에서는 Carter Goodrich, "Economic History: One Field or Two?"; Lance E. Davis, Jonathan R.T. Hughes and Stanley Reiter, "Aspects of Quantitative Research in Economic History"; B.E. Supple, "Economic History and Economic Growth" 등의 論文이 發表되어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XX, No. 4, December 1960에 掲載되었다. 한편 1963년에는 國際經濟學會가 世界的인 經濟學者 및 經濟史家들을 多數 動員하여 「離陸」(take-off)의 問題에 관한 學術會議을 開催함으로써 그러한 方向을 더욱 前進시켰으며 그 成果는 同年에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ed. by W.W. Rostow)로서 出版되었다.

(4) 이와 같은 傾向에서의 業績은 無數히 나타나고 있으나 그 主要한 것으로서는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conomic History, Contributions and Communications*, Stockholm, 1960 所收의 諸論文을 비롯하여 B.E. Supple(ed.), *The Experience of Economic Growth: Case Studies in Economic History*, 1963 所收의 諸論文; Phyllis Deane and W.A. Cole, *British Economic Growth, 1688-1959*, 1962;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965; 그리고 H.J. Habakkuk and M. Postan (eds.), *The Cambridge Economic History of Europe, VI,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After, Part I & II*, 1965 등이 있다.

것이다. 더구나 理論的인 關心과 方法에 의해서 研究가 促進되고 있는 史的 問題로서의 産業革命에 관한 概念構成은 그의 認識과 앞으로의 研究의 進展을 위해서도 크게 要請되고 있는 問題인 것이다.⁽⁵⁾

이와 같은 時點에서 本稿는 産業革命의 概念을 研究史的으로 考察한 것이다. 産業革命을 어떠한 意味內容으로 認識하느냐 하는 問題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그것을 다루는 史家의 視角과 研究方法, 그리고 究極的으로는 史觀과 關係되는 問題이므로 오랜 研究史 속에서 提示된 諸概念을 綜合해서 하나의 概念으로 提示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産業革命의 概念에 관한 主要한 諸見解를 研究史的으로 整理·分析하고 그의 現代的 意味를 考察한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II.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의 定立

産業革命이라는 用語가 明確한 概念을 가진 學術語로서 처음으로 使用되고 普及되게 된 것은 토인비에 의해서였다. 물론 産業革命이라는 用語 그 自體의 使用이 반드시 토인비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叙上한 바와 같이 産業革命期의 社會經濟的 諸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當時부터 經濟學者들은 물론 많은 社會批評家들에 의해서 論議되어 왔으며 또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⁶⁾ 그러나 産業革命期의 諸問題에 관한 當時의 論議는 一般的으로 機械生産體制의 導入에 따르는 새로운 産業社會에로의 變革과 그에 隨伴한 여러가지 社會的 害惡에 대한 驚嘆 또는 非難이라고하는 形態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와 같은 變革의 社會經濟的 意義를 強調하기 위해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가 斷片的으로 使用되었음에 不過하다. 이와같은 前史를 前提로 하면서도 産業革命研究의 起點을 이룩하게 된 것은 토인비에 이르러서였으며 産業革命을 主題로 한 그의 遺稿『18世紀 英國 産業革命 講義』가 1884년에 出版됨으로서 産業革命은 近代英國經濟史研究에서 基礎的 概念

(5) 하아트웰은 産業革命研究에서 重要한 네 가지 問題로서 (1) 産業革命의 定義, (2) 그의 歷史的 役割, (3) 그것이 낳은 變化의 過程 (4) 그의 結果를 들고 있다. R.M. Hartwell, *op. cit.*, p.43. 이와같은 問題와 關聯한 日本經濟史學界의 業績으로서는 小松芳喬著『英國産業革命史』, 再訂版, 1957; 高橋幸八郎編『産業革命の研究』, 1965年 所收論文; 矢口孝次郎著『産業革命研究序說』, 1967 등이 있다.

(6)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는 이미 1837년에 블랑키(J.A. Blanqui)에 의해서, 1845년에는 엥겔스(F. Engels)에 의해서 그리고 1865년에는 제본즈(W.S. Jevons)에 의해서 使用되고 있다. H. Heaton, "Industrial Revolution,"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VIII, 1933(이 論文은 R.M. Hartwell(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1967에 再收錄되었으며 本稿에서는 이것을 利用했다. p.31); W.J. Ashley, *The Economic Organisation of England*, 1919, p. 140; G.N. Clark, *The Ide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1953, pp.7-14 參照.

으로 確立되고 普及되게 되었던 것이다.

토인비는 産業革命을 以前과는 基本的으로 다른 時代에로의 急激한 社會經濟的 變革過程으로 認識하고 있다. 그는 産業革命의 本質을 「以前에 富의 生産 및 分配을 支配하고 있던 中世的 諸規制에 代身해서 競爭이 나타난 것」⁽⁷⁾이라고 認識하고 그의 主要 內容을 다음과 같이 把握하고 있다. 첫째는 全體로서의 人口가 急速히 增加하는 속에서 農業人口는 相對的 및 絶對的으로 減少하는 한편 都市人口가 크게 增加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共同耕地制의 破壞, 共同地 및 荒蕪地의 大規模 인클로우저, 그리고 小農의 大農場에의 統合을 主內容으로 하는 農地革命(an agrarian revolution)에 의해서 農業人口가 減少하고 특히 中小農이 沒落하는 한편 農業改良이 이루어지고 農業生産力이 크게 增加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機械가 發明됨으로서 家內工業制에서 工場制에로의 工業生産組織上的 變化가 이루어지고 工業生産力이 크게 擴大되었다는 것이다. 넷째로 交通手段의 變革은 商業을 發展시키고 그것은 工場制를 더욱 成長시켰으며 工場制가 發達하고 大規模生産이 이루어짐으로써 過剩生産과 不況期의 規則的인 循環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結果的으로 貧富의 隔差가 擴大되고 勞動者의 地位가 惡化되었다는 것이다.⁽⁸⁾

이와 같이 토인비는 産業革命을 單純한 技術革新과 그 結果로서의 富의 量的 增大라고 하는 經濟過程으로서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社會關係의 急激한 變化를 가져 온 「一大社會革命」⁽⁹⁾(a great social revolution)으로 認識했다. 즉 그는 19世紀 産業社會의 特徵으로서의 競爭, 工場制, 富의 大增加와 分配의 不平等, 大資本家の 雇傭主와 勞動者라고 하는 새로운 階級關係의 出現등이 1760年에서 1830年에 이르는 時期의 急激한 社會經濟的 根本的變革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歷史的 變革過程을 바로 産業革命으로 認識했던 것이다.

産業革命을 過去와 質的으로 다른 새로운 工業社會를 形成하는 激變期로 認識한 토인비에게는 그것이 結果한 社會經濟的 條件은 勞動者에게는 不幸한 것이었다. 그것은 激變하는 社會經濟過程에서 나타난 一時的 摩擦로서가 아니라 根本的으로는 産業革命에 의해서 中世的 諸規制에 代身하여 自由競爭이 經濟의 指導原理가 된 結果로서 나타난 것이었다. 즉 그는 自由競爭이 生産力의 大增加를 招來했다는 것을 是認하면서 한편 그것은 家內工業制下에서의 人間的 紐帶關係에 基礎를 둔 雇傭關係를 工場制下에서는 金錢的關係로 轉換시키고 雇傭主로 하여금 無限한 金錢的 利益을 追求하게 함으로서 分配面에서는 過去에 없었던 不

(7) A. Toynbee,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1890, p. 85.

(8) *Ibid.*, pp. 87-93.

(9) *Ibid.*, p. 92.

平等을 낳고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를 悲慘한 狀態에 빠지게 했다고 主張했다. 「産業革命은 自由競爭이 福祉를 낳지 않으면서 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證明했다」⁽¹⁰⁾고 主張함으로써 토인비는 産業革命이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에 미친 影響에 關係해서 悲觀的 見解(pessimistic view)를 取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토인비의 産業革命 認識은 그의 社會改良主義的 立場에 基礎를 둔 것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分配面의 不平等을 除去하고 社會正義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生産面에서의 自由競爭은 認定하되 分配面에서는 社會立法을 통해서 그것을 抑制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事實 그는 1846年⁽¹¹⁾ 以後에 勞動者의 經濟的地位가 改善되었다는 것을 認定하고 그 原因으로서 自由貿易과 함께 市場立法, 勞動組合 및 協同組合運動을 들고 있다. 즉 그는 自由貿易은 國富 및 勞動需要의 增大와 景氣의 安定性 增大를 통해서 貨金의 安定과 雇傭의 規則性을 增大시키고 또한 빵과 工業製品 價格의 安定性을 增大시키므로써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의 改善에 寄與하는 한편 市場立法과 勞動組合 및 協同組合 運動은 分配面에서의 自由競爭 原則을 制限하고 社會正義를 實現케 함으로서 勞動者의 地位를 改善하는 데에 貢獻했다고 指摘하고 있다.⁽¹²⁾ 특히 토인비는 1867年에 勞動者가 選舉權을 獲得하고 自由國家의 市民으로서 政治的 獨立을 認定받음으로서 資本家의 雇傭主와 勞動者와의 從來의 金錢的 結合에 基礎를 둔 分裂對立關係는 보다 強力한 새로운 結合에 基礎를 둔 協調關係로 轉換되었다고 主張하고 이와 같은 勞動者의 政治的 獨立은 國家干涉이라고 하는 方法을 통해서 勞動者의 物質的 獨立을 隨伴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國家干涉의 內容으로서 그는 勞使間의 生産物分配에 대한 干涉도 생각하고 있으나 그가 보다 큰 期待를 걸고 있는 것은 租稅政策이다. 「租稅의 再調整은 國家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위해서 供給할 수 없는 많은 것을 供給할 수 있게 할 것이다」⁽¹³⁾고 指摘하면서 토인비는 鐵道, 가스, 水道等 重要한 公益事業의 國有化라든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의한 勞動者의 住宅問題解決등에 의한 勞動者의 完全한 物質的 獨立의 可能性을 믿고 있다.⁽¹⁴⁾ 産業革命期의 自由競爭 原理에 의해서 結果된 悲慘한 勞動者의 地位는 19世紀 40年代 以後 특히 國家干涉에 의해서 꾸준히 改善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도 더욱 改善될 수 있다고 展望한 토인비의 立場은 바로 社會改良主義 였던 것이다.

歷史上 最初の 工業化를 遂行하여 「世界의 市場」으로서 世界經濟에 君臨했던 英國經濟는

(10) *Ibid.*, p. 93.

(11) 1846年은 穀物法이 撤廢되고 英國의 自由貿易體制가 確立된 해이다.

(12) Toynbee, *op. cit.*, pp. 143-6.

(13) *Ibid.*, p. 151.

(14) *Ibid.*, pp. 148-152.

1873年以後의 大恐慌(the great depression)過程에서 相對的으로 停滯하게 되고 또한 그속에서 여러가지 社會經濟問題가 顯在化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諸問題는 放任된 自然的 秩序에 의해서가 아니라 制度的 改革을 包含한 社會經濟政策에 의해서 是正되어야 한다는 社會改良主義가 擡頭되는 속에서 토인비의 産業革命論은 크게 注目되게 되었으며 또한 그가 歷史的 概念으로 처음 使用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는 그후 이 時期를 다룬 經濟史論著에서 利用되게 되었다. 케임브리지의 巨匠 키닝검(W. Cunningham)은 大著『英國工業 및 商業의 成長』第2卷(1903年)에서 英國의 産業革命을 論하고 있으며,⁽¹⁵⁾ 하버드의 巨匠 애슐리(W.J. Ashley)도 1914년의 著書『英國의 經濟組織』에서 産業革命을 論하고 있다.⁽¹⁶⁾ 특히 産業革命은 1906년에 『18世紀의 産業革命』⁽¹⁷⁾이라는 書名의 學問的 價値가 높은 망뚜(Paul Mantoux)의 大著가 出版됨으로써 近代經濟史의 基礎的 學術語로서 確固한 地位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망뚜의 勞作은 基本的으로는 토인비의 問題意識에 따라서 그의 産業革命研究를 크게 發展시킨 것이었다. 事實 토인비의 産業革命研究는 그후의 모든 産業革命研究의 始發點이 되고 그의 問題意識은 그후의 研究方向에 強力한 影響을 미친 先驅的인 것이었지만 한편 그렇듯 先驅的인 것이었던 만큼 그것은 産業革命의 體系的 認識이라는 點에서 一定한 限界를 갖인 것이었다. 그것은 토인비가 産業革命의 內容으로 提示한 諸事實의 相互間의 論理的 關聯性이 充分히 說明되지 않았으며 또한 實證的인 側面에서도 不充分한 것이었다는 點에서이다. 이와 같은 點에서 망뚜의 研究는 토인비의 限界를 克服하고 産業革命의 보다 體系的이고 實證的인 認識을 前進시킨 것이었다. 망뚜에 있어서는 産業革命은 그의 著書의 構成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發明과 大企業」 즉 機械體系的 導入에 따르는 工場制의 成立 및 普及와 그 結果로서의 人口增加와 그의 都市集中, 資本家와 勞動者간의 階級的 分裂과 對立의 激化, 그리고 勞動者의 窮乏化라고 하는 體系에서 認識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産業革命 以前의 段階에서의 舊工業의 發展이라든가 商業의 大發展 및 農業革命은 「先行條件」으로 位置지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망뚜는 産業革命의 一般的 性格을 技術的 觀點으로는 生産의 繼續的인 促進과 增大를 可能하게 하는 生産方法의 發明과 利用, 經濟的 觀點으로는 資本

(15) W. Cunningham, *The Growth of English Industry and Commerce in Modern Times*, Part II. *Laissez Faire*, 1903, pp. 609-613.

(16) Ashley, *op. cit.*, pp. 140-172.

(17) Paul Mantoux, *La révolution industrielle au xviii^e siècle, essai sur les commencements de la grande industrie moderne en Angleterre*, 1906. 이 책은 1928년에 英譯되었으며 本稿에서는 1961年版 英譯本을 利用했다.

의 集積과 大企業의 設立 및 普及, 그리고 社會的 觀點으로는 새로운 社會階級の 形成과 階級間的 對立을 內容으로 하는 「社會의 實質 그 自體의 更新」으로 認識하고 있으며 18世紀의 英國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變革의 過程이 바로 그의 產業革命이었다. 뿐만 아니라 망투는 英國의 產業革命을 英國 한 나라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더 나아가서는 全世界에 普及될 最初의 것으로서 世界史的인 觀點에서 位置지우고 있다.⁽¹⁸⁾ 망투의 產業革命概念은 工業化를 통한 社會經濟構造의 變化와 그의 國際的 波及이라고 하는 側面에서 볼 때 產業革命의 現代的 解釋과도 相通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注目되는 것이다.

토인비의 產業革命 概念은 망투에 의해서 學問的으로 보다 體系化되고 豊富한 內容이 賦與되게 되면서 近代 英國經濟史의 基礎的 概念으로 定立되고 普及되었다. 또한 토인비의 產業革命論은 웹夫妻(Sidney and Beatrice Webb)와 특히 해먼드夫妻(J.L. and B. Hammond)를 통해서 그후의 產業革命 解釋에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웹夫妻의 著作에는 產業革命을 主題로 한 것은 없으나 產業革命의 社會的 結果에 관해서 그들은 基本的으로 토인비와 같은 立場에 있었다. 社會勞動問題에 관한 著作 活動을 통해서 많은 影響을 미친 웹夫妻가 產業革命에 관한 토인비의 解釋을 普及시키는 데에 큰 役割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¹⁹⁾ 그러나 精力的인 著作 活動을 통해서 產業革命 그 自體와 그것이 結果한 社會的 結果를 論함으로서 토인비의 產業革命解釋=悲觀論의 普及에 決定的 役割을 한 것은 해먼드夫妻였다.

해먼드夫妻는 產業革命을 全體的으로 다룬 1925年의 著書『近代產業의 成長』에서 古代社會와 近代社會를 比較하면서 產業革命을 「農民文明에서 工業文明에로의 變化」⁽²⁰⁾ 過程으로 認識하고 產業革命의 內容을 鐵道時代以前的 交通革命, 農民社會의 瓦解 및 產業에 있어서의 慣習의 破壞, 蒸氣機關의 發明, 그리고 鐵工業, 陶器工業 및 縮工業등의 變革이라고 하는 側面에서 考察하고 마지막으로 產業革命의 社會的 結果를 論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해먼드夫妻도 產業革命을 單純한 技術革命과 그 結果로서의 生産力의 增大라고 하는 量的 概念으로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社會關係의 急激한 變化 또는 새로운 文明을 創造하는 社會革命이라고 하는 質的 概念으로 認識하고 있다. 이와 같은 產業革命의 認識은 叙上한 바와 같이 토인비의 그것과 같은 것이다. 즉 토인비와 같이 해먼드夫妻도 產業革命이 生産力의 大增加를 낳으면서도 結果的으로 階級間的 分裂과 對立을 激化하고 社會秩序의 混

(18) Mantoux, *Ibid.*, pp. 475-477.

(19) 웹夫妻는 많은 著作을 남겼으나 특히 重要한 것은 *The History of Trade Unionism*, 1894이다. S. 웹은 *Labour in the Longest Reign*, Fabian Tract, No. 75, 1897에서 產業革命解釋에서 悲觀的 見解를 明白히 하고 있다. R.M. Hartwell,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1971, p. 82 參照.

(20) J.L. Hammond and Barbara Hammond, *The Rise of Modern Industry*, 1925, p. ix.

亂을 가져왔다는 것을 強調하고 이와 같은 社會秩序의 混亂은 國家干涉, 勞動組合 및 工場法體系에 의해서 克服되고 새로운 社會의 秩序가 回復되기 始作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특히 産業革命의 社會的 結果가 勞動者에게는 悲慘한 것이었다고 하는 悲觀的見解는 1910年代에 勞動者의 狀態에 관한 해먼드夫妻의 三部作⁽²¹⁾에서 이미 強調되고 있다. 특히 그들은 『都市勞動者』에서 「産業革命은 物質的 힘과 그러한 힘이 賦與하는 機會의 大擴大를 가져왔다. 이 책이 主張하는 바 第一의 結果는 悲慘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革命은 보다 幸福하고 보다 賢明하고 보다 自尊心있는 社會를 創造하지는 않고 國民大多數의 墮落과 모든 것이 利潤을 위해서 犧牲되는 都市生活의 急成長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이다」라고 主張하고 「1760年—1834年の 英國의 農業勞動者의 運命을 研究한 사람은 누구도 그의 運命이 急激히 기우러졌다는 것을 疑心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指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産業革命期에 文明은 새로운 害惡들에 의해서 침울해졌다. 새로운 害惡들은 突然한 騷動의 結果 나타난 것이었으며 그 騷動은 社會의 諸慣習이 瓦解되고 새로운 形態의 權力和 새로운 諸關係가 生活環境을 變化시킬 경우에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指摘하고 「19世紀의 歷史는 이러한 無秩序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努力의 歷史이다」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²²⁾

이렇듯 産業革命을 「그 自身の 諸問題와 性格을 가진 새로운 文明을 創造하는 社會革命」⁽²³⁾으로 認識하고 그것이 全體로서는 經濟的 量的 擴大를 가져왔으면서도 勤勞大衆의 社會的 經濟的 墮落을 招來했다고 主張함으로써 토인비命題를 確認한 해먼드夫妻는 그들의 精力的인 著作活動과 熱情的인 文章을 통해서 토인비命題의 普及에 큰 役割을 했다. 토인비의 産業革命 概念과 그 社會的 結果에 관한 解釋은 해먼드夫妻에 繼承되었으며 産業革命에 관한 「古典的 學說」로서의 토인비—해먼드命題(Toynbee-Hammond thesis)는 20世紀初의 經濟史學界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産業革命에 관한 通說로서 教科書에서도 넓이 通用되었던 것이다.

III.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에 대한 批判

1.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의 否定

(21) *The Village Labourer, 1760—1832*, 1911, Guild Books, 2 vols., 1948; *The Town Labourer, 1760—1832*, 1917, Guild Books, 2 vols., 1949; *The Skilled Labourer, 1760—1832*, 1919.

(22) J.L. Hammond and B. Hammond, *The Town Labourer*, Preface 參照

(23) *Ibid.*, Guild Books, Vol. I, p. 16.

그러나 토인비의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은 20世紀의 20年代에 들어와서 強力한 批判에 直面하게 되었다. 批判의 첫째 側面은 토인비가 産業革命이라는 概念으로 認識한 歷史上的 時期가 과연 過去와 斷絶된 「革命」의 時期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側面에 관한 有力한 批判은 우선 맨체스터(Manchester)의 自由主義 經濟史家 언윈(G. Unwin)에 의해서 提起되었다. 그는 1924년의 論文『一般史에 있어서의 若干의 經濟的 諸要素』⁽²⁴⁾에서 19世紀의 一般史에 있어서의 가장 두드러진 經濟的 및 社會的 側面을 첫째로 全體로서의 人間의 生産力의 無限한 增大에 의해서 可能해진 人口의 大增加, 둘째로 分業을 통한 能率增大 및 個個人과 家族集團의 國內, 國家間, 그리고 大陸間的 地理的 可動性的 大增大와 社會的 可動性的 大增大, 그리고 셋째로 勞動者와 資本家間的 集團組織의 急成長으로 보고 이들 諸側面이야말로 歷史의 積極적이고 建設的인 諸要因으로서 19世紀의 世界經濟 즉 世界共同體(a World Community)의 展開에 作用한 諸要因이라고 指摘하면서 이들 諸事實을 産業革命의 構成內容으로 認識하고 있다. 언윈은 이와 같은 産業革命이야말로 英國으로 하여금 自身の 努力에 의해서 스스로를 救濟할 수 있게 했으며 또한 그 先例를 따름으로써 유럽을 救濟할 수 있게 했다고 主張함으로써 그것을 肯定的 積極적으로 評價하고 있다.⁽²⁵⁾ 토오니(R.H. Tawney)의 表現을 빌면 언윈은 「産業革命의 意義를 繼續적으로 增大하는 部分의 人間을 經濟諸關係의 單一體制에 包括하는 보다 廣大하고 보다 複合的인 共同體의 成長에서 찾았다.」⁽²⁶⁾

이와 같이 언윈은 産業革命에 一定한 意味內容을 賦與하고 그것을 構成하는 諸事實의 歷史的 意義를 肯定的 積極적으로 評價하고 있다. 그러나 언윈은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自身の 著書의 副題로서 使用하면서도⁽²⁷⁾ 그의 「革命」성을 否定하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過去를 뒤돌아 보아서 革命이 二世紀間 遂行되어 왔고 또한 그 以前에 二世紀間 準備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原因과 結果에 있어서 그것이 오늘날 아직도 農業者이며 農民인 人類의 4분의3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運命에 그것이 工業勞動者의 運命에 주는 것 만큼 深刻하게 影響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産業革命이라는 用語가 그것이 처음 採用되었을 적에는 매우 有用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오늘날에는 쓸모가 없어

(24) G. Unwin, "Some Economic Factors in General History," *The New Past*, ed. by E.H. Carter, 1924, Chapt. viii. 이 論文은 R.H. Tawney (ed. with an Introductory Memoir), *Studies in Economic History: The Collected Papers of George Unwin*, 1927에 收錄되었으며 이 論文集은 1958년에 再版되었다. 本稿에서는 이 論文集을 利用했다.

(25) *Ibid.*, pp. 14-5.

(26) *Ibid.*, p. lxv.

(27) G. Unwin, A. Hulme and G. Taylor, *Samuel Oldknow and the Arkwrights, The Industrial Revolution at Stockport and Marple*, 1924.

진 것이 아닌가 疑問하기 시작할 것이다.」⁽²⁸⁾ 언윈은 産業革命이 토인비가 생각한 것과 같이 1760—1830년에 急激하게 遂行된 것이 아니라 오랜 期間에 걸쳐서 漸進적으로 遂行된 것인 만큼 그것에 「革命」이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것은 正當하지 못하다고 主張했던 것이다.

언윈에 뒤이어 産業革命의 革命性을 否定하고 그의 古典的 認識에 強力한 批判을 加함으로써 産業革命 解釋에 一大轉機를 가져온 것은 케임브리지의 巨匠 클래팜(J.H. Clapham)이었다. 그는 歷史發展을 連續的 過程으로 보고 그것을 斷絶이라든가 革命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進歩하는 것으로 認識했다. 이와 같은 클래팜의 連續的 過程으로서의 歷史認識은 마아샬(A. Marshall)의 經濟過程에 관한 「連續性的 原理」(the Principle of Continuity)⁽²⁹⁾에 基礎를 둔 것이었다. 특히 그는 1920년에 그의 『經濟學原理』第8版에 붙인 序言에서 「經濟的 進化는 漸進的인 것이다. 經濟的 進歩는 때로는 政治的 大激突에 의해서 沮害되거나 또는 逆轉되기도 한다. 그러나 經濟的 前進運動은 決코 突變的이 아니다. ……비록 天才的인 發明家나 組織家나 또는 金融家가 사람들의 經濟構造를 一擊에 變化시키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미친 影響은 單純히 表面的이고 一時的인 것은 아니었지만 잘 檢討해 보면 오래동안 準備되어온 廣汎한 構造的 運動을 絶頂에 達하게 하는 以上の 것이 아님을 알게된다. ……」自然은 飛躍하지 않는다」(*Natura non facit saltum*)라는 標語는 經濟的 諸基礎에 관한 著書에게는 特別히 適合하다」⁽³⁰⁾라고 指摘하면서 經濟過程의 連續性을 強調하고 있다. 특히 産業革命과의 關聯에서 마아샬은 1919년의 그의 著書 『工業과 貿易』에서 「英國의 主導的 地位가 主로 展開된 40 내지 50年은 때로는 産業革命의 時期라고 叙述되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일어난 것은 革命이 아니라 數百年間 거의 中斷없이 進行한 進化의 一段階에 不過했다」⁽³¹⁾고 指摘하면서 中世初期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經濟的 進化에 의해서 첫째로는 資本力의 增大, 둘째로는 筋肉勞動負擔의 減少와 動物 自然 및 石炭에너지 利用의 增大, 셋째로는 工業組織의 一般的 性格의 變化가 이루어졌다⁽³²⁾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立場에 있는 마아샬로서는 産業革命期에 나타난 「諸害惡」은 그 大部分이 工場制의 成長에 歸因될 수는 없으며 그와 함께 人口 增加率의 繼續的 增加라든가 戰爭 物價 특히 穀價의 激變등에 因한 不安定性의 增大라든가

(28) Tawney(ed.), *Studies in Economic History*, p. 15.

(29) A.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An Introductory Volume*, 1890 (本書는 1920년에 第8版이 나오고 그후 版을 거듭했다. 本稿에서는 1959年版을 利用했다), p. vi.

(30) *Ibid.*, pp. xi-xii.

(31) A. Marshall, *Industry and Trade: A Study of Industrial Technique and Business Organization; and of Their Influences on the Conditions of Various Classes and Nations*, 1919, 3rd ed., 1920, p.9.

(32) *Ibid.*, pp. 9-10.

雇傭의 不安定性등이 그의 主要한 原因으로 생각되었다.⁽³³⁾ 또한 그로서는 初期의 纖維工場의 技術的 條件이라든가 높은 빵 價格이라든가 急出世한 雇傭主의 苛酷한 態度라든가 그리고 支配階級の 立法 및 行政의 無能등이 相互作用함으로서 成年男子勞働者, 婦女勞働者 및 兒童勞働者에게 不幸과 墮落을 結果했다고 생각되었다.⁽³⁴⁾ 이렇게 해서 經濟發展의 連續性을 強調하는 立場에서는 産業革命期의 諸害惡도 産業革命이 낳은 直接的 結果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마아샬의 經濟發展의 連續性이라고 하는 經濟過程認識의 基本原理에 立脚해서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을 否定하고 産業革命의 社會的 結果에 관한 古典的 解釋=悲觀的 見解를 批判한 綜合的이고 體系의인 研究가 바로 1926년에 出版된 클래팸의 大著『近代 英國 經濟史』⁽³⁵⁾이었던 것이다.

클래팸은 바로 産業革命期를 다룬 그의 大著에서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의 使用을 徹底히 排擊하고 많은 産業部門에 걸친 細密한 數量的 分析을 통해서 이 時期의 變化가 얼마나 漸進的이고 多樣한 形態로 展開되었는가를 詳細히 說明하고 있다. 그는 「英國의 어느 單一 産業도 1830年 以前에 完全한 技術革命을 經過하지 않았기 때문에 英國은 낡은 諸形態의 産業組織과 多樣한 種類의 過渡的 諸形態로 充滿되고 있었다. 綿紡績業에서마져 金屬附屬品을 가진 初期의 木製機械가 一般的으로 使用되고 있었으며 金屬製의 「自動」물紡績機는 새로이 發明되었고 보다 前進的인 工場에서 使用되고 있었음에 不過하다」⁽³⁶⁾고 指摘함으로서 이 時期의 技術革新의 漸進性을 印象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그는 「革命」이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기는 하지만 例를 들어 「革命을 거친 諸産業」(revolutionised industries)⁽³⁷⁾이라든가 「새로운 또는 革命을 經驗한 同業者들」(the new or revolutionised trades)⁽³⁸⁾이라는 用語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을 同一産業內 또는 諸産業에서의 「技術革新」이라는 意味에서 그것을 使用하고 있음에 不過하다. 따라서 비록 그가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使用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古典的 概念으로서의 産業革命(the Industrial Revolution)이 아니라 一聯의 技術革新의 總稱으로서의 諸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s)⁽³⁹⁾이었다. 뿐만 아니라 클래팸은 이와 같은 諸産業革命도 單一産業內部에 있어서 또는 諸産業間에서 相當한 時期的인 差異를 가지고 얼마나 漸進的으로 進行되었는가를 詳細히 量的으로 밝히고 있다. 그에 의

(33) *Ibid.*, p. 74.

(34) *Ibid.*, p. 76.

(35) J.H. Clapham,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The Early Railway Age, 1820-1850*, 1928. 著者は 이 책을 A. Marshall과 W. Cunningham에 바치고 있다.

(36) *Ibid.*, p. 143.

(37) *Ibid.*, p. 192.

(38) *Ibid.*, p. 214.

(39) *Ibid.*, p. 205.

하면 1830년까지 技術的 革新을 遂行한 工業은 綿工業을 비롯해서 主要冶金諸工業 및 機械工業 등이며 余他 諸工業은 部分的으로 技術革新을 거치든가 또는 全히 技術革新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比較的 大規模의 資本主義的 大企業이 一般的으로 成立된 産業部門은 綿工業, 鐵工業 및 유리工業 등이었고 綿工業以外的 諸纖維工業에서와 같이 部分的으로 革命을 거친 諸工業에서는 大規模 動力을 利用하는 企業이 一般化되어 가고 있기는 하면서도 實際에는 아직도 代表的인 것이 되지는 못하고 있었으며 余他 諸工業에서는 家內手工業의 獨立 生産者들이 多數存在하고 있었다.⁽⁴⁰⁾ 또한 그는 勞動組合도 資本家的 産業組織의 產物이기는 하나 결코 18世紀 및 19世紀初의 諸産業革命의 產物은 아니며 오히려 諸産業革命은 一聯의 結社禁止法에도 不拘하고 18世紀를 통해서 꾸준히 前進하던 勞動組合의 自然的發達을 妨害하고 沮害했다고 主張하고 있다.⁽⁴¹⁾ 클래팜은 諸産業革命과 그의 時期的 差異 그리고 그의 漸進性·連續性을 強調함으로써 實質的으로 産業革命의 突變性 및 斷絶性을 否定하고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의 使用을 排斥했던 것이다.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使用을 排斥했다고 해서 클래팜이 그와 같은 概念으로 認識된 歷史過程의 重要性을 否定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1934년의 論文 『經濟的變化』에서 18世紀 中葉 以後의 유럽의 經濟發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그것은 單純한 産業革命은 아니었다. 그 歷史는 發明을 列擧하는 것이라든가 發明家의 傳記는 아니다. 그것은 單純히 資本이라든가 資本主義的 生産의 歷史도 아니며 商業, 工業 및 農業 등이 慣習的 規則 또는 法的規制에서 解放된 歷史도 아니다. 事實 機械的 發明, 資本力의 強化, 經濟的 自由의 擴大, 國際貿易의 擴大와 함께 顯著한 人口增加가 나타나고——더욱 重要的 것은——精密科學의 方法과 結果가 部分的이나마 經濟的인 일에 導入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18世紀 後半期 및 19世紀 前半期의 유럽 經濟史의 두드러진 特徵은 어떠한 個個의 變化 또는 個個의 變化群에서 發見될 것이 아니라, 多樣한 型의 變化가 同時에 일어났다는 것과 그들 型에서 어떠한 것이 急激히 發展했다는 데에서 發見되어야 한다. 모든 곳에서 變化가 나타나고 變化의 原因은 限없이 多樣했다.……이와 같은 諸事實의 敘述을 어떠한 一般化의 鑄型에 맞출 수는 없다.」⁽⁴²⁾ 이렇듯 産業革命의 突發性 및 斷絶性을 否定하고 그러한 用語의 使用을 排斥한 클래팜은 이 時期의 經濟發展의 內容을 社會經濟的 構造的 變化보다도 人口增加, 資本率의 增大, 技術革新=生産性 增大, 國際貿易의 擴大 및 經濟的 自由의 擴大 등

(40) *Ibid.*, Chapter V 參照

(41) *Ibid.*, p. 205.

(42) J.H. Clapham, "Economic Change," *Camb. Mod. Hist.* X, 1934, p. 727. 矢口孝次郎 前掲書 p.92에서 引用.

에 의한 經濟規模의 擴大 및 所得의 增大이라고 하는 經濟的 量的 擴大過程으로 보았던 것이다.

古典的 產業革命 認識에 대한 批判의 둘째는 基本的으로는 첫째와 關聯되는 것이지만은 產業革命의 社會的 結果의 評價에 관한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도 클레팸은 悲觀的 見解를 「傳說」이라고 規定하면서 그와는 根本적으로 對立되는 樂觀的 見解(optimistic view)를 展開하고 있다. 즉 그는 「人民憲章의 起草와 大博覽會와의 사이의 어느 時期에 이르기까지 萬事가 勞動者에게 漸次로 惡化되고 있었다는 傳說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⁴³⁾고 不滿을 表明하면서 賃金統計 및 生産費指數를 基礎로 한 數量的 分析의 結果로서 「史料利用이 可能的 都市 또는 工業勞動者의 모든 階級에 대해서 共同 手織綿工業과 같은 斜陽産業을 除外하고 賃金은 (1850년까지의—引用者) 60年間に 顯著히 上昇했다. 런던의 煉瓦工이라고든가 植字工과 같은 幸運한 階級에게는 賃金은 40% 以上 上昇하고 幸運不運間에 都市 및 工業勞動者 大衆에게는 아마도 40% 上昇했다」⁽⁴⁴⁾고 結論짓고 있다. 클레팸의 產業革命의 社會的 評價에 관한 悲觀的 「傳說」에 대한 攻擊과 樂觀論의 主張은 從來 社會經濟史家가 等閑視했던 數量的 分析方法을 經濟史 研究에 導入하여 物質的 側面에 重點을 둔 分析의 結果로서 나타난 것이었지만은 그와 함께 그것은 歷史를 繼續的인 進歩의 過程으로 보는 그의 歷史認識의 基本的 立場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다.

要컨데 古典的 產業革命 概念에 대한 批判은 生産手段의 變化 즉 技術革新을 包含해서 產業革命이라는 概念으로 認識된 歷史過程이 「突發的」 또는 「革命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長期間에 걸쳐서 漸進적으로 展開된 것인 만큼 그와 같은 歷史過程에 產業革命이라는 레텔을 붙인다는 것이 不當하다는 것과 產業革命은 勞動者의 物質的 條件을 改善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批判이 반드시 클레팸에 비롯된 것은 아니고 이미 部分的으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⁴⁵⁾ 그러나 그것이 綜合的 그리고 體系的으로 遂行된 것은 클레팸에 의해서였으며 그것은 그의 學識과 權威에 의해서 產業革命 解釋에 하나의 轉機를 가져왔던 것이다.

2. 產業革命 概念의 多樣化

클레팸의 研究를 轉機로 해서 產業革命에 관한 研究는 一般論보다도 特殊的 또는 實證的 研究라는 方向에서 活潑하게 展開되게 되었다. 1929년에 비일즈(H.L. Beales)는 이와 같은 研究結果를 세 가지로 要約하고 있다. 첫째는 產業革命의 年代記의 修正이다. 즉 產業革命에 先行하는 時期 및 그의 初期에 관한 研究가 進展되어 그 結果로서 1760年을 產業革命

(43) Clapham, *An Economic History of Modern Britain*, p. vii.

(44) *Ibid.*, p. 561.

(45) 拙稿, “產業革命과 勞動者의 生活水準”, 經濟論集, 第X卷, 第1號, 1971, 11面 參照

의 始點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8世紀 前半期の 諸發展이 重要視되게 된 한편 그 終期도 보다 後期로 擴大됨으로서 産業革命으로부터 그 激變의 性格을 除去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偉大한 諸發明을 天才의 獨創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社會的 環境과의 關聯에서 解釋하고 發明의 社會性을 強調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조용한 解釋은 産業革命의 劇的 性質을 除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産業革命의 社會的 結果에 관한 統計的 數量的 研究에 의해서 古典的 樂觀論이 強調되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方向에서의 研究의 諸結果는 一般的으로 古典的인 産業革命 概念을 修正하는 것이었으며 古典的인 主張을 뒷바침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한 속에서 産業革命의 革命性 또는 斷絶性은 否定되고 그의 連續性이 強調되게 되었다. 經濟史家들은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使用을 싫어하거나 비록 그것을 使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랜 準備期間과 그 自體의 過程을 거쳐서 遂行된 漸進的 및 連續的 過程으로 認識함으로써 産業革命을 別다른 概念없이 便宜上 利用하는 傾向을 나타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時期에 古典的인 産業革命 概念과는 다른 그리고 그것을 批判하는 立場에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有用性을 積極的으로 擁護한 學者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例를 들어 叙上한 비일즈는 古典的인 大著가 出版된 2年 後인 1928年에 『産業革命』⁽⁴⁷⁾이라는 題目의 著書를 出版하여 이 用語의 有用性을 象徴的으로 強調했다. 그는 古典的인 産業革命 概念이 內包하고 있는 「突變 및 激變」(the sudden and cataclysmic)⁽⁴⁸⁾說=悲觀論을 不正確하고 偏見이 있는 것이라고 批判하면서도 한편 連續說=樂觀論에 대해서는 「萬若 그것이 産業革命이 가져온 社會經濟的 諸變化를 最終的 意味에서 單純히 程度(degree)의 變化이지 形態(form)의 變化가 아니다 즉 量의 變化이지 質의 變化가 아니다 라고 主張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異議를 提示하지 않으면 안된다」⁽⁴⁹⁾고 批判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는 統計가 밝힐 수 없는 生活의 質에 變化가 있었다」⁽⁵⁰⁾고 指摘하면서 그와 같은 諸變化가 産業革命期에 일어났다고 主張하고 産業革命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産業革命은 하나의 社會制度 또는 文明을 다른 것으로 代替했다. 産業革命이 일어나기 以前에는 農業이 英國人의 生活의 經濟的 基礎를 提供했으며 그 以後에는 抽出産業 및 製造業이 基礎가 되었다. 작은 人口는 커지고 좁은 物的 裝備은 넓어지고 낮은 消費水準은

(46) H.L. Beales, "The Industrial Revolution," *History*, 14, 1929, pp. 126-9 參照.

(47) H.L. Beales, *The Industrial Revolution 1750-1850: An Introductory Essay*, 1928. 이 책은 1958년에 著者 自身の *New Introductory Essay*가 添加되어 再版되었다. 本稿에서는 1958年の 新版을 利用했다.

(48) *Ibid.*, p. 29.

(49) *Ibid.*, p. 31.

(50) *Ibid.*, p. 31.

높아지고 勞動者 階級은 發言權을 가지게 되었다. 農耕과 牧畜에 基礎를 두었던 文明이 衰退하고——그 代身 石炭, 鐵 그리고 輸入纖維原料에 어찌던 不安하게 基礎를 둔 새로운 秩序가 나타났다.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는 이러한 諸變化를 要約한 것이다.」비일즈는 이와 같은 英國의 産業革命이 後에 美國, 독일, 日本, 南阿, 캐나다등 諸國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注意하고 同一한 一般의 特徵을 나타내는 國民經濟的 變革過程이라는 意味에서 그것을 諸産業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多數의 國家의 經濟 및 社會生活에는 그것을 描寫하는 用語가 必要할 만큼 明確히 두두리진 局面이 있다.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는 그의 매우 重要한 側面에 注意를 끄는 것이다.」⁽⁵¹⁾라고 主張함으로써 産業革命에 積極的인 內容을 賦與하려고 努力했던 것이다.

비일즈의 産業革命 概念은 그 時期로 보아 産業革命에 一定한 意味內容을 賦與하려고 試圖했다는 點에서 매우 重要한 것이었다. 그러나 産業革命이라는 用語가 排除되거나 또는 無概念化되어가는 傾向은 비일즈의 努力에 의해서 바꾸어지기에는 너무나 強力한 것이었다. 비일즈의 試圖에도 不拘하고 産業革命의 革命性的의 否定 및 連續性的의 強調라고 하는 古典派的 見解는 커다란 影響力을 가지고 普及되어 갔다. 「조지 3世 治世 (1760年—1820年)에 일어난 發展은 過去와의 急激한 斷絶과 새로운 시작으로서 보다도 오히려 長期에 걸친 進化的 過程의 急速化로 보아야 한다」⁽⁵²⁾라고 하는 레드포드(A. Redford)의 指摘은 當時의 學界의 傾向을 端的으로 나타낸 것이었다.

經濟發展의 連續성을 強調하고 産業革命의 激變性 또는 斷絶性を 否定하려는 傾向은 1930年代에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네프(J.U. Nef)는 1932年の 著書『英國 石炭産業의 成長』에서 16世紀 中葉에서 17世紀 中葉에 이르는 期間에 石炭生産量의 大增大를 비롯해서 소금, 유리, 船舶, 明礬, 비누, 火藥, 金屬製品 및 裝身品등 諸工業 生産品의 增大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技術上의 變革과 組織上의 變化를 隨伴했다는 점을 注目하여 그것을 試論적으로 18世紀 中葉 以後의 産業革命에 先行한 「初期 産業革命」(an early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불렀다.⁽⁵³⁾ 이와 같은 네프의 「初期 産業革命」은 1934年の 그의 論文⁽⁵⁴⁾에서 보다 明確하게 強調되고 있다. 네프는 「鑛業과 製造業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重要性的의 增大가 그 速度에 있어서 16世紀 中葉에서 市民革命에 이르는 期間에 18世紀 中葉에서 最初의

(51) *Ibid.*, p. 30.

(52) A. Redford,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1760—1860*, 1931, cited in H. Heaton, *Economic History of Europe*, revised ed., 1948, p. 480.

(53) J.U. Nef, *The Rise of the British Coal Industry*, 1932, I, pp. 19, 123-4, 165-89.

(54) J.U. Nef, "The Progress of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Large-Scale Industry in Great Britain, 1540—1640", *Economic History Review*, V(1934), I. 이 論文은 Carus-Wilson(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1954에 收錄되었으며 本稿에서는 이 論文集을 利用했다.

選舉法(1832年—引用者)에 이르는 期間에 比해서 거의 느리지 않았던 것 같다」⁽⁵⁵⁾고 指摘하고 1540年—1640年の 1世紀間의 鑛工業 發展의 意義를 重要視하고 있다. 즉 그는 이 期間에 이루어진 (1) 製紙, 火藥, 武器, 明礬 및 綠礬, 製糖, 硝石 등의 新工業의 導入, (2) 炭坑 및 鑛山에서의 排水 및 通風技術의 導入이라든가 製鐵工業에서의 從來의 小規模 鑄鐵爐 (forge)에 代身해서 水力을 利用하는 大規模 鑄鐵爐 (blast furnace)의 普及 등 舊工業에서의 技術革新과 鑛業 및 冶金業에서의 資本主義의 形態의 大企業의 普及, (3) 燃料로서 木炭의 石炭에 의한 代替와 그에 따르는 技術의 諸問題의 解決 등 新技術의 方法의 發見과 應用, (4) 技術革新 및 「木材燃料 經濟」(wood-burning economy)에서 「石炭燃料 經濟」(coal-burning economy)에의 一般의 轉換과 그 以外의 諸要因에 의한 産業資本의 集中=企業規模의 擴大 등 諸事實을 들면서 「英國에 있어서의 産業主義의 成長은 18世紀 後期와 19世紀初와 結付된 突變現象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適切하게는 16世紀 中葉에 遡及해서 19世紀 末葉의 工業國家의 最後의 勝利에 이르는 오랜 過程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⁶⁾라고 強調하고 있다. 따라서 네프로서는 「産業資本主義의 連續인 急速한 過程이 英國에서 가장 오랜 期間 繼續된 것 같이 보이므로 産業革命이라는 概念은 英國에서의 工業文明의 勝利를 說明하는 것으로서는 특히 不適切한 것 같이 보인다. 이 概念은 이 過程이 특히 突變의 이었다는 印象을 준다」⁽⁵⁷⁾고 보였으며 그는 그와 같은 印象을 주는 古典的 概念을 排除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傾向은 1933年에 『社會科學百科辭典』에 寄稿한 히이톤(H. Heaton)의 論文 『産業革命』⁽⁵⁸⁾에서 要約되고 있다. 히이톤은 産業革命의 概念을 「18世紀의 增大하는 勢力 및 速度가 近代産業主義를 낳은 經濟的 및 技術的 諸發展에게 賦與된 名稱」⁽⁵⁹⁾이라고 莫然하게 規定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産業革命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準備期間이 걸렸고 또한 生産方法의 變革도 一般的으로는 보다 長期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⁶⁰⁾ 그는 「150年間 繼續되고 또한 그의 準備에 또 다시 적어도 150년이 걸린 革命은 새로운 라벨을 必要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아니다」라고 指摘하면서도 「1750年頃에 시작된 時期에는 速度와 氣分에 있어서 그 以前의 어느 時期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産業革命이라는 用語는 躊躇하면서도 使用하고 있으며 그에 代身할 만한

(55) Carus-Wilson(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p.89.

(56) *Ibid.*, p. 105.

(57) *Ibid.*, p. 107.

(58) H. Hea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Encyclopa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VIII, 1933. 이 論文은 R.M. Hartwell(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1967에 收錄되고 있으며 本稿에서는 이 論文集을 利用했다.

(59) Hartwell(ed.), *The Causes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ngland*, p. 31.

(60) *Ibid.*, p. 34.

보다 나은 用語는 考案되지 않고 있다」⁽⁶¹⁾고 함으로서 그 用語를 使用하는 것을 否定하지는 않고 있다. 하이톤은 産業革命이 16世紀 以來의 技術, 企業組織 및 規模, 그리고 科學的 知識의 發達을 前提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強調하면서⁽⁶²⁾ 産業革命의 社會的 結果에 관해서는 그것은 轉換期, 戰爭, 景氣變動등으로 部分的으로는 被害를 주었지만은 一般的으로는 人口의 大多數의 物質的 福祉를 低下시켰다기 보다는 오히려 增大시켰다고 指摘하고 있다.⁽⁶³⁾ 하이톤은 英國에서 일어난 産業革命은 餘他 諸國에 普及되어 그들 諸國의 諸産業革命을 惹起시켰지만은 그 경우 産業革命의 方向은 英國의 그것과 大體的으로 類似的한 것이었다⁽⁶⁴⁾고 指摘함으로서 各國의 産業革命에 의해서 經濟社會의 同質性이 擴大되어 나가는 局面을 注目하고 있다.

經濟發展의 連續性과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不適性을 더욱 強調한 것은 립슨(E. Lipson)이었다. 그의 이와 같은 見解는 1931년에 出版된 후 오래동안 널리 採용된 標準的 教科書인 『英國經濟史』 第2卷⁽⁶⁵⁾의 1943년의 擴大 第3版에 附인 序論에서 被濫되었고 그후의 著書 『英國社會의 成長』⁽⁶⁶⁾에서 보다 詳細하게 부연되고 있다. 이들 兩書를 통해서 립슨은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始終 관호안에 넣어서 使用하고 있다. 우선 립슨은 「過去를 解釋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經濟成長의 서로 다른 諸局面을 물셈됨없는 坎막이로 隔離시켜서는 안된다. 經濟發展의 過程에는 斷絶은 없고 恒常 進歩와 變化의 連續의 潮流가 있는 것이며 그 속에서 낡은 것은 거의 認知할 수 없이 새로운 것과 混合되고 있다.」⁽⁶⁷⁾라고 하면서 그의 基本的 觀點을 明確히 하고 뒤이어 「産業革命」이라고 指稱되고 있는 諸事件은 既存秩序의 突然한 破壞의 構成要素가 아니라 이미 顯著的한 進歩를 해온 繼續的인 움직임의 一部였다. 아아크라이드, 왓트, 스티븐슨, 其他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結付되고 있는 有名한 諸發明은 2世紀 以上에 걸친 一聯의 오랜 經驗의 頂點이었다.」⁽⁶⁸⁾라고 指摘함으로서 産業革命의 連續性・漸進性을 強調하고 있다. 립슨은 産業革命의 特徵을 (1) 機械發明, (2) 機械動力의 採用, (3) 製鐵技術의 變革이라고 하는 機械發明 또는 技術革新으로 認識하고⁽⁶⁹⁾ 이와같은 産業革命이 英國에서 처음 일어날 수 있었던 要因으로서 外國貿易의 擴大와 함께 (1) 商業 및 銀行

(61) *Ibid.*, p. 35.

(62) *Ibid.*, pp. 36-8.

(63) *Ibid.*, p. 51.

(64) *Ibid.*, pp. 43-50.

(65) E. Lipson, *The Econom History of England, Volume II & III, The Age of Mercantilism*, 1931, Fifth ed., 1948.

(66) E. Lipson, *The Growth of English Society: A Short Economic History*, 1953.

(67)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Vol. II, p. i & Vol. III, p. 53.

(68) *Ibid.*, Vol. II, pp. cxxxvii & Vol. III, p. 53; Lipson, *The Growth of English Society*, p. 193.

(69) Lipson, *The Growth of English Society*, p.209.

業의 發達, (2) 企業家階級の 存在, (3) 人口增加, (4) 廣汎한 中産階級の 存在와 그의 有効 需要의 増大에 따르는 國內市場의 擴大, (5) 工業燃料로서의 早期의 石炭使用 등을 들고 있다. (70) 립슨은 自身이 認識하는 産業革命의 要因들 모두가 先行하는 오랜 時期에 걸쳐서 準備되어 온 것이며 결코 急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이 책에서 提示한 「産業革命」 解釋이 諸發明의 劃期的 地位를 極少化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71) 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産業革命의 內容 그 自體를 否定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의 意義를 重要視하고 있다. 즉 그는 그가 産業革命의 內容이라고 본 機械發明 또는 技術革新의 結果로서 첫째로 英國社會의 中心이 農業社會에서 工業社會에 移行했다는 것, 둘째로 主要 工業組織으로서 工場制가 成長하게 되었다는 것, 셋째로 人口가 増加했음에도 不拘하고 勞動需要가 増大하고 勞動者의 生活 水準이 改善되었다는 것(립슨은 機械의 導入에 歸因시켜온 諸害惡 또는 轉換期의 不可避한 諸害惡은 7年戰爭, 美國獨立戰爭, 英佛戰爭 등 諸戰爭에 의해서 어느 程度 더 커졌다고 指摘하고 있다), 넷째로 主要 工業의 地域의 分布가 變化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72) 그러나 립슨은 19世紀 및 20世紀의 特徵으로서의 資本主義, 工場, 大規模生産, 海外市場, 特許, 信用證書, 景氣變動, 無產者, 勞動組合 등이 기껏해서 100年前의 動力으로 움직이는 機械가 導入됨으로써 즉 産業革命에 의해서 出現한 것이다 라고 보는 解釋이 一般的이지마는 이와 같은 解釋은 産業革命 以前을 매우 停滯한 時代라고 보는 誤謬를 犯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現代社會에 새롭다고 생각되는 많은 것이 實際에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낡은 構造는 이미 現代世界와 結付된 資本家의 特徵의 많은 것을 徐徐히 發展시켜 왔으며 機械의 發明이 新時代의 到來를 알릴 때에는 英國은 이미 그의 受容態勢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함으로서 産業革命에 先行한 時期 특히 重商主義時代에 있어서의 經濟的 發展을 重要視하고 있다. (73) 이러한 觀點에서 립슨은 「萬若에 우리가 諸發明이 突然히 英國社會를 變革시키고 새로운 産業秩序를 誕生시켰다고 하는 傳說을 打破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代身에 機械技術의 變化는 歷史的 進化의 方向에 따라서 이루어진 自然的 發展 즉 몇 世紀에 걸친 着實한 成長의 頂點으로 보는 보다 合理的 解釋을 가질수 있는 것이다」(74) 라고 指摘함으로서 強力한 連續性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70)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Vol. II, pp. cxxxix-cxii; do., *The Growth of English Society*, pp. 189-193.

(71) Lipson, *The Growth of English Society*, p. 216.

(72) Lipson, *The Economic History of England*, Vol. II, pp. cxxxix-cxiii; do., *The Growth of English Society*, pp. 215-226.

(73) Lipson, *The Growth of English Society*, pp. 188-9.

(74) *Ibid.*, p. 189.

그러나 産業革命을 否定하고 經濟發展의 連續性을 主張하는 學者들도 18世紀 中葉 以後의 經濟發展의 重要性 그 自體를 否定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叙上한 바와 같이 클래팜 自身 18世紀 後半期와 19世紀 前半期の 經濟發展의 重要性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고 네프도 이 時期의 發展의 重要性을 一門 認定한 위에서 「初期産業革命」을 主張했으며 또한 ills도 産業革命이 社會經濟的 發展에서 가지는 劃期的 地位를 認定하고 있다. 이러듯 産業革命期の 經濟發展의 重要性은 認定하면서도 그의 「革命」性을 否定하는 連續說의 立場에서는 古典의 概念으로서의 産業革命을 否定하여 一般的으로 「單一 또는 몇몇 工業의 變革」이라든가 單純한 「機械의 發明」 또는 「技術革新」과 그에 隨伴한 産業組織의 變化등을 産業革命으로 認識하게 됨으로서 歷史上의 하나의 劃期로서의 産業革命에 代身해서 多數의 諸産業革命이 나타나게 되었고 따라서 歷史上 獨自의인 劃期性이 賦與되었던 18世紀 後半期에서 19世紀 初의 産業革命도 諸産業革命의 하나로서 認識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캐러스 윌슨(E.M. Carus-Wilson)은 13世紀 英國 毛織物 工業의 縮絨工程(fulling process)에 人力縮絨에 代身하여 水力 縮絨方法이 發明 導入되고 있다는 事實에서 「13世紀의 産業革命」을 主張했으며⁽⁷⁵⁾ 슈페터(J.A. Schumpeter)는 景氣循環의 一形態로서의 長期波動과 産業革命을 同一視하여 「諸産業革命」을 論하고 있다.

특히 슈페터는 1939년에 出版된 그의 大著『景氣循環論』⁽⁷⁶⁾에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는 萬若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새로운 經濟 및 社會秩序를 創造한 하나의 獨特한 事件 또는 一聯의 諸事件이었다는 觀念이라든가 또는 그것이 以前의 發展과의 關聯없이 18世紀의 最後의 20—30年間에 突然히 世上에 불쑥 나타났다는 觀念을 傳達하려는 것이라면 流行에 뒤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誤解를 낳는 것이며 또는 原理上으로 誤謬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特別한 産業革命(18世紀 後半期~19世紀初의 産業革命—引用者)을 그에 先行한 적어도 두 개의 類似한 事件 및 그에 뒤따른 적어도 두 개의 類似한 事件과 同位에 넣는다.」⁽⁷⁷⁾고 指摘함으로서 「特別한 産業革命」의 獨自性을 否定하고 그것을 「諸産業革命」의 하나로 認識하고 있다. 企業家の 革新活動를 資本主義 經濟發展의 基本的 契機로 보는 슈페터에게는 革新과 그 成果의 吸收期間이 約 60年을 周期로 循環하는 長期波動으로서의 콘드라티에프 循環(Kondratieff Cycles)이 바로 産業革命이었다. 「産業革命은 相

(75) E.M. Carus-Wilson, "An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Thirteenth Century," *Economic History Review*, Vol. XI, No. 1, 1941. 이 論文은 E.M. Carus-Wilson(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1954에 再收錄되고 있다.

(76) Joseph A. Schumpeter, *Business Cycles, A Theoretical, Historical,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apitalist Process*, 2 Vols, 1939.

(77) *Ibid.*, Vol. 1, p. 253.

互重疊된 여러 期間의 諸循環群으로 構成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諸循環이 共同으로 그 自體에 있어서도 역시 明白히 循環的 性格을 가지고 있었던 經濟 및 社會構造에 根本的 變化를 가져왔다.⁽⁷⁸⁾ 슈페터에 의하면 18世紀의 80年代에서 1842년에 이르는 第1 콘드라티에프 循環이 바로 그가 말한 「特別한 産業革命」이었으며 蒸氣와 鋼鐵의 時代라고 불리워지는 1842年—1897年이 第2 콘드라티에프 循環, 그리고 電氣工業 化學工業 및 自動車工業이 重要한 役割을 하는 1898年 以後의 第3 콘드라티에프 循環도 各各 循環的으로 나타난 産業革命이었다.⁽⁷⁹⁾ 슈페터는 특히 1920年代의 革新을 「20年代의 産業革命」이라고 부르고 있다.⁽⁸⁰⁾ 슈페터는 다른 機會에 「各 長期波動은 産業革命과 그의 吸收로 構成되고 있다」⁽⁸¹⁾고 指摘하고 産業革命의 內容을 「新生産方法—機械화된 工場 電化된 工場 化學的合成 등, 新商品—鐵道서비스 自動車 電氣器具 등, 新組織形態—企業合併運動, 新供給源—라프라다羊毛 美國綿花 카탕가銅, 新去來루트 및 新販賣市場 등을 導入해서 既存의 産業構造를 周期的으로 再編成하는 것」⁽⁸²⁾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슈페터에게는 産業革命은 資本主義經濟의 發展過程에서 循環的으로 나타나는 過程에 不過했던 것이다.

IV. 産業革命 概念의 現代的 再構成

1. 先驅的 試圖

經濟發展의 連續說의 立場에서 産業革命의 「革命」性이 否定되고 古典的 概念으로서의 그 用語의 使用이 排除되는 한편 그것이 어느 한 工業部門 또는 工程에서의 技術革新, 몇몇 工業의 技術革新과 企業規模의 擴大 그리고 景氣循環의 一形態로서의 長期波動등과 同一次元에서 認識됨으로써 이제야 産業革命은 「古典的 産業革命」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많은 「産業革命들」이 存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事情을 콜먼(D.C. Coleman)은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經濟史家들의 著作에는 革命들이 充滿하고 있다. 商業 및 農業 「革命」도 하나에 끼치지 않지 않는 그것을 且置하더라도 우리 主題의 研究者는 諸産業革命의 連續에 直面하고 있다. 後期 青銅器時代, 13世紀, 15世紀, 1540年—1640年의 1世紀, 17世紀 後期 그리고 古典的 産業革命期을 지나서 19世紀後期和 20世紀初—이들 全時期에 걸쳐서 英國 한 나라의

(78) *Ibid.*, p. 168.

(79) *Ibid.*, p. 170.

(80) *Ibid.*, Vol. II, p. 753.

(81) Joseph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1942, Twelfth Impression, 1970, p. 67.

(82) *Ibid.*, p. 68.

經濟發展에서도 諸産業革命이 觀察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인다. 다른 나라들 例를 들어 19世紀 末葉의 독일과 日本도 産業革命의 請求者를 가지고 있다. 現在에는 電子方式의 開發과 그들의 産業制禦에의 利用에 의해서 열려진 自動制禦工場(automatic factory)의 可能性이 다가온 「第二次産業革命」에 관한 論議를 刺戟하고 있다.⁽⁸⁴⁾ 이와 같은 諸産業革命과 함께 「經營者革命」,⁽⁸⁵⁾ 「20世紀 資本家革命」,⁽⁸⁵⁾ 「株式會社革命」⁽⁸⁶⁾ 등 많은 「革命」이 主張되고 「革命」은 하나의 流行語가 된 느낌을 줄 만큼 자주 使用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多様な 産業革命은 歷史的 概念으로서의 産業革命의 意味內容을 明確히 定立한다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混亂케 했다. 별다른 歷史的 概念 없는 多様な 産業革命의 廣範한 利用은 産業革命 概念의 混亂과 그 歷史的 意味의 喪失을 招來하게 했다. 産業革命을 歷史的 概念으로 再認識하고 그의 綜合的 研究를 深化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産業革命 概念의 混亂 또는 無概念化의 傾向을 克服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産業革命概念의 混亂 또는 無概念化 傾向을 克服하려는 試圖은 叙上한 바 있는 비일즈의 경우와 같이 일찍부터 存在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本格的으로 展開된 것은 第2次大戰 以後에 들어서었다. 이와같은 試圖로서 우선 指摘해 두어야 할 것은 돕(M. Dobb)의 그것이다. 돕은 1946년의 著書 『資本主義發展의 研究』에서 産業革命 概念을 明確히 하고 그것이 비록 長期에 걸친 準備過程을 거치기는 했으나 「革命」的 事實이었다는 것을 強調함으로써 連續說에 立脚한 産業革命 否定論을 批判하고 있다. 돕은 産業革命과의 關聯해서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産業革命이라는 名稱이 賦與되고 있는 産業構造의 變化가 20年내지 30年이라는 時限內에 두어질 수 있는 單一事件이 아니었다는 것은 오늘날 一般의인 見解가 되고 있다. 諸産業部門間의 發展의 不均衡은 當時의 主要한 諸特徵의 하나였다. 즉 諸産業部門의 歷史 그리고 한 産業內 諸部門의 歷史마저도(國家間의 工業은 且置하더라도) 그들의 主要發展諸段階의 時點이 一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特定産業의 構造의 變化는 때로는 半世紀以上 걸리는 過程이었다. 變化의 本質은 人間이라든가 動物의 힘에 代身해서 機械의 動力化와 普通 關聯지워지고 있는 生産의 性格에 있어서의 變化에 있었다.

(83) D.C. Coleman, "Industrial Growth and Industrial Revolutions," *Economica*, 1956. 이 論文은 Carus-Wilson(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Volume Three, 1962에 再收錄되고 있으며 本稿에서는 再收錄版을 利用했다. p. 224.

(84) J. Burnham, *The Managerial Revolution*, 1941

(85) Adolf A. Berle, Jr., *The 20th Century Capitalist Revolution*, 1954.

(86) Adolf A. Berle, Jr. and Gardiner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1932, 8th printing, 1956, p. vii.

맡스는 決定的 變化가 以前에 人間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던 道具에 代身한 機械體系의 設置에 있었다고 主張했다.…… 이와 같은 決定的 變化는… 生産過程을 急激히 變化시켰다.」⁽⁸⁷⁾ 이어서 돕은 이와 같은 變化가 勞動者가 工場에 集中되어 人間과 機械가 한 組가 되어 共動하는 集團의 性格을 生産過程에 賦與하게 되고 이러한 共動生産過程이 分業을 一層 增大시키고 또한 生産者의 活動을 機械過程의 리듬 및 運動에 適應할 必要性을 一層 增大시켰다고 指摘하면서 특히 生産者活動의 機械過程에의 適應 必要性의 增大는 技術上의 均衡의 變化로서 그 社會經濟的 反映은 勞動의 資本에의 從屬性 增大와 細細한 作業에서까지 生産者에 대한 強制力과 懲戒力을 行使하는 資本家의 役割의 增大였다고 指摘하고 있다.⁽⁸⁸⁾ 돕은 「이와 같은 變化는 몇몇 側面에서는 經濟革命이라는 名稱을 받을 만한 價値가 充分히 있을 만큼 決定的인 것이었으며 變化에 관한 토인비의 古典의 敘述을 制限하기 위해서 그후에 記述된 어느 것도 連續性的의 崇拜者들이 願하는나 이 名稱의 拋棄를 正當化하는 데에는 不充分하다. 革命이라는 名稱의 妥當性은 技術的 變化 自體의 速度에 있다기보다는 技術的 變化와 産業構造 및 經濟的 社會的 諸關係의 構造間의 密接한 關係에 있으며 또한 새로운 諸發明이 後者에 미친 影響의 範圍와 意義에 있다.」⁽⁸⁹⁾ 고 指摘함으로써 産業革命에 一定한 歷史的 概念을 賦與하고 있는 것이다.

돕도 諸變化가 産業部門에 따라서 時期的으로 큰 差異가 있으며 또한 一定한 部門에서는 産業革命과 關聯되지 않고 있는 諸變化가 이미 튜더時代 末期에 나타나고 있었던 反面에 家內工業은 19世紀 後半期까지도 殘存했다고 指摘함으로써 諸變化의 漸進性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다.⁽⁹⁰⁾ 그러나 그는 連續說의 立場에 선 諸見解가 産業革命을 技術的 變化 또는 純技術革命으로 보고 그것을 歷史上 한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일어날수 있는 一連의 變化의 連續으로 봄으로서 技術變化가 어느 決定的水準에 到達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産業構造 및 社會的 生産關係의 變化라고 하는 特別한 意義를 看過하고 있다고 批判하면서 産業革命의 歷史的 意義를 強調하고 있다.⁽⁹¹⁾ 한편 돕은 産業革命의 社會的 側面으로서 「工業의 指揮者, 生産單位의 操業의 組織者 및 企劃者, 勞動者에 대한 權威主義的 規律의 化身으로서」의 새로운 形態의 資本家階級과 「經濟的 市民權을 喪失하고 飢餓과 雇傭主의 監督者의 매질에 의해서 他人을 위해서 귀찮은 義務의 遂行을 強要받는」⁽⁹²⁾ 勞動者階級の 成立을 重要視

(87) Maurice Dobb,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1946, pp. 258-9.

(88) *Ibid.*, p. 259.

(89) *Ibid.*, pp. 260-1.

(90) *Ibid.*, pp. 261-3.

(91) *Ibid.*, pp. 267-8.

(92) *Ibid.*, p. 260.

하고 이 時期의 自然的 및 制度的 要因에 의한 人口增加와 人口의 可動性的 增大가 低廉하고 豊富한 勞動力을 供給함으로써 資本蓄積을 促進시켰다고 指摘하고 있다.⁽⁹³⁾

둘의 歷史認識方法은 社會改良主義의인 토인비의 그것과는 根本적으로 相異한 것이지만 적어도 産業革命을 技術革新을 基軸으로 하는 社會經濟的 構造의 또는 諸關係의 急激한 變化의 過程으로 認識하고 그 過程에서 勞動者의 社會經濟的 地位가 低下되었다고 認識하고 있다는 點에서는 兩者의 産業革命認識에는 相通하는 面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둘의 産業革命認識은 그 自體가 하나의 獨自의인 系列의 歷史認識方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그것을 連續說에 立脚하고 있는 諸見解와의 對比에서보면 明白히 古典的 産業革命 認識에 보다 가까운 것이다. 이와 같은 둘의 産業革命 認識은 産業革命을 「突然한 大規模의 社會的 變革」⁽⁹⁴⁾으로 認識하고 오늘날 悲觀的 見解를 代表하고 있는 흙스보움(E. J. Hobsbawm)의 그것과 相通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둘의 連續說에 立脚한 産業革命 認識에 대한 批判,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의 再評價, 그리고 自身の 概念構成의 努力은 그 自體로서는 注目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것이 産業革命 認識의 一般의 傾向에 큰 影響을 미치지지는 못했다. 事實 古典的 産業革命 認識에 對한 批判으로서 나타난 것이 連續說 및 樂觀論的 産業革命 認識이었던 만큼 類型的으로 볼 때 前者의 立場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批判과 概念構成이라고 해서 그것이 쉽게 後者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 하면 兩者의 立場사이에는 歷史를 보는 觀點에서 基本的인 差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問題는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拒否 또는 無概念化라고 하는 學界의 一般의 傾向속에서 同一한 歷史認識方法으로서 連續說에 立脚하면서 如何히 그 用語의 使用을 正當化하고 또한 그것에 一定한 歷史的 概念을 새로이 賦與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先驅의인 役割을 하고 많은 影響을 미친 學者는 애슈톤(T.S. Ashton)이었다.

産業革命 研究의 權威 애슈톤은 經濟發展을 連續的 過程으로 보고 그 過程에서 勤勞大衆의 物質的 生活水準의 改善을 믿는 正統的인 클래팸리스트였다. 그는 클래팸의 立場에서 있으면서도 클래팸 以來의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것을 拒否하거나 또는 別다른 概念없이 그것을 使用하는 學界의 一般의 傾向속에서 바로 『産業革命』이라는 冊子를 出版함으로써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有用性을 새로히 確認하고 그에 一定한 歷史的 概念을 賦與하려고 試圖했던 것이다.

(93) *Ibid.*, pp. 272-7.

(94) E.J. Hobsbawm, "The Standard of Living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 Discussion," *Economic History Review*, XVI, 1963, p. 129.

連續說의 立場에 있는 애슈톤은 經濟發展 過程에서 「革命」은 있을 수 없으며 資本主義라고 불리지는 人間關係의 體系는 보다 긴 歷史期間에 걸쳐서 展開된 것인 만큼 「革命」이라는 用語에는 이와 같은 連續性을 看過할 危險이 있다고 指摘하면서 經濟的 革命을 否定하고 있다. 그는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는 많은 歷史家에 의해서 오랫동안 使用되어 왔고 또한 日常會話속에 確固한 뿌리를 박고 있으므로 그에 代替할 用語를 새삼스럽게 提示한다는 것은 術學的이라고 할 것이다」⁽⁹⁵⁾라는 理由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使用을 有用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슈톤은 産業革命을 別다른 概念없이 單純히 便宜上 使用하는 從來의 連續論者와는 달리 매우 價重하면서도 그의 有用性을 明確히 主張하고 있다. 다만 그는 革命이라는 語句가 經濟發展의 連續의 性格을 否定하는 危險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危險을 充分히 認識한 위에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애슈톤이 이러한 條件을 부쳐서 使用한 産業革命의 內容은 무엇인가? 애슈톤 自身은 産業革命에 관한 明確한 概念規定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産業革命을 一般的으로 1960年에서 1830年에 이르는 期間의 英國의 社會經濟的 變化라고 認識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이 期間에 이루어졌다고 본 社會經濟的 變化의 內容은 (1) 共同權이 作用하고 있던 土地의 完全한 인클로우저, (2) 都市化의 進展과 工場의 普及, (3) 道路 運河 鐵製軌道 定期蒸氣船 등 交通機關의 變革, (4) 社會構造의 變革으로서의 人口增加와 그의 地域的 構成의 變化, 그의 工場, 勞動者에로의 流入에 따르는 낡은 形態의 熟練의 消滅, 그리고 就業機會가 많은 工業 中心地에의 勞動移動이 容易해짐으로써 能力있고 또한 그것을 願하는 勞動者의 보다 快適한 生活水準의 實現 (5) 新原料源의 開發, 新市場의 展開, 새로운 商業手段의 考案, (6) 資本量과 流動性의 增大, 金本位制의 展開, 그리고 銀行制度의 出現, (7) 낡은 特權 및 獨占의 廢棄와 民間企業活動의 自由의 增大, (8) 革新과 進歩의 思想에 의한 傳統的 諸觀念의 打破등으로 보고 이러한 一聯의 變化를 産業革命으로 보고 있다. 즉 애슈톤은 産業革命을 産業上의 變化만이 아니라 社會的 및 知的인 變化를 包含한 概念으로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⁹⁶⁾

이와 같은 애슈톤의 産業革命 概念은 그의 敘述 體系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는 産業革命에 先行한 時期에 있어서의 「初期産業의 諸形態」(第2章)를 論하면서 「모든 分野의 人間活動에서 成長은 있었으나 變化는 既存의 諸制度의 安定性을 威脅할 만큼 急激한 것은 아니었다. 1700年—1760年の 期間에 英國은 生産技術에 있어서나 産業構造에 있어서나 또는 國民의 經濟的 및 社會的 生活에서나 아무런 革命을 經驗하지 않았다」⁽⁹⁷⁾고 結論的으로 말하고 있다.

(95) T.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1948, p. 2.

(96) *Ibid.*, pp. 1-2.

(97) *Ibid.*, p. 57.

이 점에서 애슈톤의 見解는 같은 連續說을 主張하는 네프라든가 립슨 그리고 캐리스 윌슨 등의 그것과는 큰 差異가 있다. 애슈톤은 그의 産業革命의 主要內容을 構成하는 「技術革新」(第3章)에서 「다른 어느時代에서나 어느 地方에서도 類例를 發見하기 힘든 突發性을 가지고 밀어닥친 것은……農業 交通工學 商業 金融에 있어서의 多様な 種類의 諸革新이었다」⁽⁹⁸⁾고指摘하면서 農業 炭鑛業 製鐵業 動力 綿工業 毛織物工業 化學工業 陶器工業 道路 運河 및 鐵道建設등의 土木事業등 諸部門에서의 技術革新을 分析하고 있다. 이어서 그의 『産業革命』의 또하나의 重要한 構成部分인 「資本과 勞動」(第4章)에서 애슈톤은 「産業革命은 工業技術上的 일이었음과 同時에 經濟學上的 일이었다. 즉 그것은 資源의 特定目的에 使用되는 方法에 있어서 變化에 못지 않게 資源의 量과 配分에 있어서의 變化였다. 이 두 가지 움직임은 事實密接하게 連結되고 있었다」⁽⁹⁹⁾고指摘하면서 資本蓄積 및 蓄積된 資金의 産業資本에의 動員을 可能케한 메카니즘과 勞動力의 供給條件 및 必要勞動力의 調達 및 雇傭管理 方式을 論하고 있다.⁽¹⁰⁰⁾

産業革命의 社會的 結果에 대해서 애슈톤은 樂觀的 見解를 主張하고 있다. 애슈톤은 産業革命期의 사람들이 自己 中心主義的으로 貪慾해지고 反社會的이 되었다는 見解는 史實과 다르다고指摘하고 自由放任主義의 時代에 있어서 産業革命이 普通 男女에게 充分한 報酬를 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行政的 措置의 缺陷에 의한 것이지 經濟的 過程의 缺陷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主張하고 있다.⁽¹⁰¹⁾ 애슈톤에 의하면 勤勞大衆의 經濟的 地位에 影響을 미친 經濟的 變動은 部分的으로는 産業革命의 結果였으나 部分的으로는 技術的 變化와는 關係없는 原因 즉 政治的 配慮라든가 戰爭에 基因하고 있었다. 즉 그는 「어느 歷史家는 「産業革命의 災害」에 관해서 쓰고 있다. 萬若 이것을 가지고 그가 意味하는 바가 1760年--1830年의 時期가 戰爭에 의해서 어두워지고 饑饉에 의해서 陰鬱해졌다는 것이라면 그 말에 아무런 反對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萬若에 그가 意味하는 바가 技術的 및 經濟的 諸變化 그 自體가 災難의 源泉이었다는 것을 意味한다면 이 意見은 確實히 不當하다」고指摘하고 이어서 그는 當時의 中心의 問題는 以前の 어느 時期보다도 훨씬 많아진 몇 世代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또한 雇傭하느냐라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면서 産業革命이야말로 英國을 增加하는 人口壓力으로부터 救濟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애슈톤은 「…그리한 아시아의 生活水準과 그리한 機械化되지 않은 恐怖가 産業革命을 經驗함이 없이 人口를 增加한 사람들의

(98) *Ibid.*, p. 58.

(99) *Ibid.*, p. 64.

(100) *Ibid.*, Chapter IV 參照.

(101) *Ibid.*, Chapter V 參照.

運命인 것이다」⁽¹⁰²⁾라고 結論함으로써 英國의 産業革命의 社會的 結果를 肯定的으로 밝게 評價하는 樂觀論을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¹⁰³⁾

이와 같은 애슈튼의 産業革命 認識이 그 立場과 解釋에서 古典의 産業革命 認識과는 基本的으로 相異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連續說의 立場에 서있으면서 産業革命의 否定 또는 無概念化 傾向을 克服하고 그것에 一定한 歷史的 意味內容을 賦與하려고 한 애슈튼의 試圖는 그의 學問的 權威와 함께 當時의 學界에 많은 影響을 미치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産業革命의 概念을 새로이 再構成하려고 하는 그 후의 理論的 및 實證的 努力을 刺戟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先驅的 役割을 했던 것이다.

2. 經濟成長史學과 産業革命 概念

産業革命 概念을 새로이 構成하려는 理論的 및 實證的 努力은 第2次大戰後에 擡頭된 經濟成長論과 그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면서 展開된 經濟成長史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經濟成長史學은 第2次大戰後에 經濟學의 하나의 重要한 問題로서 提起된 先進工業國의 持續的 經濟成長과 低開發國의 經濟開發이라고 하는 現實的인 問題意識 위에서 經濟成長論 내지 經濟發展論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면서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는 經濟史 研究의 새로운 흐름이다. 經濟成長史學에서는 經濟理論과 計量的 方法에 基礎를 두고 經濟的 變化 또는 發展의 要因으로서 技術進步 人口增加 資本蓄積 등 經濟的 要因은 물론 企業家活動이라든가 制度的 問題 등 非經濟的 要因도 重要視되어 分析되고 있다. 이와 같은 問題들은 傳統的인 經濟史學에서도 主要 研究對象으로서 分析되어 온 터이지만 그것이 依據하고 있는 理論的 基盤과 方法은 매우 다른 것이다.

持續的「經濟成長」과 「經濟開發」을 問題로하는 理論에 있어서나 그와같은 現實的 問題를 前提로 하여 理論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면서 展開되고 있는 經濟成長史學에 있어서 近代의 成長을 可能케 한 歷史的 轉機로서의 産業革命은 重要한 認識의 對象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近代의 成長을 可能케한 歷史的 轉機였기 때문이다. 길(Richard T. Gill)은 現代 經濟發展論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基礎的」諸概念을 對象으로 하는 分野를 (1) 貧困한 社會에 있어서의 經濟發展에 대한 障礙의 性質, (2) 近代의 經濟成長의 自己維持의 性格, (3) 發展의 「始動」(getting started)의 過程이라는 相互關聯되는 세가지 分野로 區分하고 그 중에서 특히 第3의 分野에 注意가 集中되고 있는 理由로서 最初의 두가지 分野에서는 經濟學者들이 일단 結論에 到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길은 指摘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發展理論 研究者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와 같이 貧困한 低開發國에서는

(102) *Ibid.*, p. 161.

(103) 이 절에 관해서는 拙稿 「産業革命과 勞動者의 生活水準」, 前掲書 14-26面 參照.

成長에 대한 障礙가 매우 크고(=貧困의 惡循環) 一旦 確立된 近代的 經濟成長의 過程이 累積의 自己補強의 傾向을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一國의 經濟發展에서 가장 關心이 깊은 問題는 發展의 「始動」에 관한 問題이다.⁽¹⁰⁴⁾ 이 問題에 관한 經濟學者들의 關心이 컸었다는 것은 이 問題와 關聯해서 그들이 「産業革命」 「離陸」(take-off), 빅푸쉬(big push), 이니셔얼 푸쉬(initial push), 突破(breakthrough), 最少 臨界努力(critical minimum effort) 등 많은 用語를 만들어내고 使用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¹⁰⁵⁾ 이들 用語는 表現이 각각 다르기는 하나 그것이 貧困의 惡循環 속에 있는 前工業 社會를 持續的 經濟成長이 이루어지는 近代的 工業社會에로 轉換케 하는 決定的契機를 意味하고 있다는 點에서 共通性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用語들이 意味하고 있는 것이 바로 經濟史에서 말하는 産業革命이다. 經濟史學에서 오랜 研究史를 가지고 展開된 産業革命 研究는 이제야 經濟理論으로 부더의 刺戟을 받으면서 가장 重要한 課題로서 認識되고 展開되게 되었다. 그와함께 産業革命 概念의 새로운 定立을 위한 試圖도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經濟成長史學의 立場에서 産業革命 概念의 새로운 定立을 本格的으로 試圖하고 이 問題에 하나의 方向을 提示한 學者는 콜먼(D.C. Coleman)이었다. 그는 1956年의 論文『工業成長과 産業革命』에서 從來의 經濟史家들이 使用해 온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用法을 세 가지로 分類하고 그 用法의 妥當性을 理論的 및 實證的으로 研究 檢討함으로써 보다 妥當한 産業革命 概念의 定立을 指向하고 있다. 즉 그는 從來의 經濟史家의 著書에서 使用되어 온 産業革命이라는 用語가 (1) 캐리스 윌슨의 「13世紀의 産業革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單一工業에서의 技術革新, (2) 工業活動의 特定部門 例를들어 全體로서의 工業의 機械의 利用에 의한 急速한 發展, (3) 國民經濟의 近代的 變革 즉 近代 工業社會에의 急激한 變化라고하는 세 가지 分野에 適用되어 왔다고 指摘하고⁽¹⁰⁶⁾ 그들 用例의 妥當性을 檢討하고 있다.

콜먼은 첫째 用例의 妥當性 如否를 檢討하기 위해서 製紙工業을 例로 들고 있다. 그 理由로서 콜먼은 첫째로 製紙業이 數世紀의 歷史를 가지고 있으며 그 製品은 매우 多樣하고 또한 特色있는 用途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은 工業文明의 成長을 反映하는 工業이라는 것, 둘째로 그것이 18世紀初에서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時期를 커버하는 믿을 만한 統計資料를 가지고 있음으로 單一工業에서의 産業革命을 數量的으로 檢討하는 데에 특히 有用하다는 것

(104) Richard T. Gill, *Economic Development: Past and Present*, 1963; 安場保吉 및 安場幸子共譯, 經濟發展論, 1965, p. 39.

(105) 이들 語句의 內容 및 起源에 관해서는 Gill, *Economic Development*, 日譯書, pp. 50-1 參照.

(106) D.C. Coleman, "Industrial Growth and Industrial Revolutions," in Carus-Wilson(ed), *Essays in Economic History*, pp. 334-5.

그리고 셋째로 製紙業의 技術 및 經濟史가 餘他の 보다 잘 알려진 諸工業과 類似한 過程을 가지고 있다는 것등을 들고 있다. 콜먼에 의하면 製紙工業의 諸工程도 纖維工業의 諸工程과 類似한 順序로 技術變革을 遂行했다. 즉 技術의 變革의 順序가 纖維工業에서는 縮絨工程—紡績工程—紡織工程—梳綿工程—完成工程으로 되고 있는데 대해서 製紙工業에서는 닝마布的 펄프化라고 하는 準備工程—漂白工程—製紙工程—乾燥 및 完成工程으로 되어 있다. 두 工業部門에서 漂白工程에서의 鹽素使用은 比較的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다.⁽¹⁰⁷⁾ 製紙工業의 技術史에서 나타난 세가지 決定的 革新은 (1) 縮絨工程에서의 水力利用의 普及 즉 캐러스 윌슨의 「13世紀의 産業革命」에 對應한 中世의 準備工程에서의 水力利用의 普及, (2) 古典的 産業革命期의 紡績 紡織 工程에서의 機械化에 對應한 製紙工程에서의 機械化, (3) 이른바 「第2次産業革命」 또는 슈페티에 의하면 第5次 産業革命 또는 第3 콘드라티에프 循環에 該當하는 19世紀의 木材펄프의 導入이라고하는 新原料의 開發 이었다.⁽¹⁰⁸⁾

그러면 이와 같은 技術革新은 諸産業革命과의 關聯에서 어떠한 意味를 갖고 있는가? 이 問題를 檢討하기 위해서 콜먼은 技術革新과 製紙工業에서의 產出量 및 該工業의 工業構造의 再編成과의 關係를 統計資料가 存在하고 있는 (2)와 (3)의 技術革新에 關해서 分析하고 있다. 그 結果 두 時期의 技術革新이 모두 다 產出量の 急增大, 그리고 工場의 數의 減少 및 工場規模의 擴大와 産業立地의 變化 등 産業構造의 再編成을 隨伴하고 있다는 것이 實證되고 있다.⁽¹⁰⁹⁾ 이와 같은 工業成長의 패턴을 評價해서 콜먼은 一旦 「單一工業에 대해서 産業革命」이라는 用語의 使用이 許容된다면 製紙工業은 두번 그와 같은 革命을 經驗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明白한 것 같다⁽¹¹⁰⁾고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콜먼은 100年 내지 150年이라고 하는 比較的 짧은 期間의 統計資料가 아니라 1710年에서 1950年에 이르는 長期의 統計資料를 가지고 成長曲線을 그리면 製紙工業에서의 「第2次 産業革命」은 數量的으로는 古典的 産業革命期에 시작된 成長率의 繼續에 不過하게 되고 木材펄프의 導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注目하고 있다. 그는 「一般的으로 成長率의 遞增局面은 工業의 매우 初期段階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러한 成長패턴은 大體的으로 로지스틱 曲線의 코오스를 따르는 것 같다. 즉 그들은 規則的인 遞減을 나타낸다」⁽¹¹¹⁾고 한 로스토우(W.W. Rostow)의 一般論에 同意하는 한편 쿠즈네츠(S. Kuznets)와 호프만(W. Hoffman)이 製紙工業을 로지스틱 曲線型이 아닌 따라서 그런 意味에서 例外的으로 同一한 成長率이 繼續적으로 維持된 産業으로 分

(107) *Ibid.*, p. 336.

(108) *Ibid.*, p. 338.

(109) *Ibid.*, pp. 338-340.

(110) *Ibid.*, pp. 340-1.

(111) *Ibid.*, p. 341.

類한 것을 批判하면서 該工業에서 規則的인 成長率의 遞減이 일찍 나타나지 않았던 原因은 代替物의 發見 즉 木材 펄프의 發見에 있었다고 指摘하고 있다.⁽¹¹²⁾ 따라서 木材 펄프를 利用하는 製紙工業과 닝마布를 利用하는 그것을 別個產業으로 본다면 後者에는 이미 로지스틱曲線이 나타났을 것이며 前者의 경우도 針葉樹林이 枯渴하게 되면 結局 또 後者와 같은 고오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分析의 結果로서 콜맨은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特定工業에 適用할 경우에 現存하는 產出量 增加率을 維持함에 不過한 革新이 있을 때마다 그 用語가 適用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産業革命의 本來의 意味를 훼손시키는 것이 되므로 19世紀末—20世紀初의 革新을 製紙工業에서의 産業革命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같은 意味에서 古典的 産業革命期의 製紙工業에서의 機械化도 該工業에서의 참다운 産業革命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비록 單純하다 할지라도 本質적으로는 同等한 量的 成果를 나타낸 中世의 革新에도 그러한 用語를 適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論議는 많은 다른 時點에서의 많은 餘他 諸工業에도 適用될 것이며 따라서 單一工業에서의 技術革新에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適用한다는 것은 適切한 것이 아니다.⁽¹¹³⁾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를 單一工業의 技術革新에 適用하는 것이 잘 못이라던 第2의 用法로서의 몇몇 工業 또는 全體로서의 工業에 適用한다는 것은 果然 妥當한 것인가? 콜맨은 이와 같이 問題를 提起하고 그 例로서 네프의 「初期産業革命」을 들고 있다. 콜맨은 네프의 石炭產業에 관한 研究를 높이 評價하면서도 「그가 自身の 것으로 만든 「産業革命」은 그 事例의 典型性보다도 그의 著書의 活氣와 熱誠의 덕을 많이 보고 있다」⁽¹¹⁴⁾고 指摘하고 있다. 즉 그는 네프가 例示한 製紙工業에는 그가 말한 것과 같은 資本과 勞動의 集中現象이 一般的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造船業도 마찬가지로 네프가 非典型的인 例에 많이 依存하고 있으며 또한 資本主義의 發展을 誇張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또한 그는 네프가 産業革命이 일어났다고 본 諸工業, 즉 鑛業 金屬工業 明礬 및 綠礬製造業등을 注意깊게 檢討하면 그의 全國的인 「産業革命」이 工業에서의 一連의 諸革新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指摘하고 이들 工業의 發展은 初期工業化의 漸進的인 進展에서의 重要한 局面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産業革命으로 評價하고 또한 19世紀의 變化와 同格으로 본다는 것은 妥當하지 않다고 指摘하고 있다. 이렇게해서 콜맨으로서는 네프의 「産業革命」은 基本的으로 캐리스 윌슨의 그것과 同類의 것이며 더 나아가서 스펀데어의 長期的 循環運動과 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産業革命으로 부를 수는 없는 것이었다.⁽¹¹⁵⁾ 또한 「自動制禦裝置」의 導入에 의한 現

(112) *Ibid.*, pp. 341-2.

(113) *Ibid.*, pp. 344-5.

(114) *Ibid.*, p. 345.

(115) *Ibid.*, pp. 354-7.

대의 「第2産業革命」의 主張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技術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工業化時代에 있어서의 工業發展 그리고 經濟成長의 性質上 不可缺한 것이며 더구나 그것은 本質的으로는 古典的 産業革命의 性質에서 由來한 것이다」⁽¹¹⁶⁾ 라고 指摘함으로써 그것을 産業革命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콜맨은 産業革命이라는 用語가 適用되는 여러가지 경우의 問題點을 檢討한 後에 結論的으로 産業革命은 다음과 같이 理解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産業革命이라는 用語는 成長率을 維持시키거나 增大시키는 特定工業에서의 一定한 技術革新이라든가 經濟的 變革에 適用해서는 안되며 또한 우리는 單純히 몇몇 工業의 成長率 增大를 나타내는 適切한 統計數字가 存在하고 있다는 것으로 부터 産業革命을 演繹할 수는 없다. 우리는 工業成長曲線과 單純한 機械化를 넘어서 그속에서 人口成長 大規模 및 廣範한 工業投資 그리고 工業에 대한 科學의 두드러진 浸透效果가 急速하고 累積的인 工業化 過程을 낳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因들이 되는 變化의 決定的 時期에까지 前進할 必要가 있다. 産業革命의 이와같은 用法——앞에서 言及한 第3의 用法(國民經濟의 近代의 變革—引用者)——은 古典的 英國産業革命에 一致함과 同時에 로스토우教授가 말하는 近代에의 「離陸」過程과도 大體的으로 一致할 것이다. 이와같은 用法에 의해서 우리는 工業化 自體를 産業革命과 同一視하는 危險을 回避하고 이 用語를 工業化된 社會를 出現케하고 그 社會를 初期의 이른바 諸産業革命의 어느 것도 일찌기 遂行하지 않았던 方法으로 變化시키는 始初의 그리고——歷史의 오랜 焦點에서는——比較的 突發的이고 急激한 變化를 위하여 留保한다. 同時에 우리는 産業革命을 위해서 一國의 歷史에서의 그의 獨特性을 保有할뿐만 아니라 例를들어서 1860年代에 始作된 日本의 産業革命 概念에서와 같이 餘他 諸國에 對해서 이 用語의 擴張도 認定하는 것이다. ... 참다운 産業革命에 의해서 社會에 招來된 質的 變化는 그러므로써 強調될 것이다. 經濟史가 비록 數量的 測定에 크게 치우치게 될는지 모르나 成長曲線등에 관한 研究가 아무리 蓄積되더라도 그들의 背後에 있는 技術的 社會的 및 經濟的 問題에 대한 嚴格한 檢討없이는 充分하지 않을 것이다.」⁽¹¹⁷⁾

叙上한 콜맨의 所論과 關聯해서 우리는 로스토우의 「離陸」概念을 檢討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던 콜맨은 自身の 所論이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과 함께 經濟成長論에 基礎를 둔 로스토우의 「離陸」概念과도 大體的으로 合致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같이 로스토우는 1960년에 出版한 그의 有名한 『經濟成長의 諸段階』에서 經濟成長의 段階를 (1) 傳統社會, (2) 離陸에의 準備, (3) 離陸, (4) 成熟, (5) 高度

(116) *Ibid.*, p. 349.

(117) *Ibid.*, p. 350.

大衆消費時代의 다섯가지로 區分해서 考察하고 있다. 이들 諸段階中에서도 우리의 關心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離陸의 段階이다. 왜냐하면 離陸의 段階는 近代工業經濟에 特徵的인 持續的 成長을 가져온 歷史的 轉換期가 되기 때문이다. 로스토우는 離陸을 다음과 같이 相互關聯되는 세가지 條件을 모두 必要로 하는 것으로서 定義하고 있다. 첫째는 生産的인 投資率이 國民所得의 5% 또는 그 以下에서부터 10%以上으로 上昇한다는 것, 둘째는 높은 成長率을 가진 1個 以上の 重要的 製造業 部門이 發展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近代의 發展에 對應한 政治的 社會的 및 制度的 構造가 存在하거나 急激히 出現한다는 것이다. (118) 로스토우는 離陸을 이와 같이 定義하고 各國의 離陸時期를 設定하면서 그 時期를 「工業化가 보다 크고 統計的으로 보다 印象的인 現象이 되는 後期보다도 工業化가 발을 붙이는 初期段階」(119)에 限定하고 있다. 왜냐 하면 「決定的 變化(投資率의 決定的 變化를 包含한)는 最初의 工業局面에서 일어나고 後期の 工業成熟은 이들 最初의 諸局面에서 놓여진 諸基礎에까지 直接的으로 適及할 수 있기」(120) 때문이다. 로스토우는 이러한 離陸의 段階를 「生産的 經濟活動의 規模가 決定的 水準에 到達하고 그들이 그의 一部인 經濟 및 社會의 크고 累進的인 構造의 變化로 이끄는 諸變化——그것은 單純히 程度(degree)의 變化라기 보다도 質(kind)의 變化라고 보는 것이 좋다——를 낳는 時期」(121)라고 指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經濟의 基本構造와 社會 및 政治構造의 雙方이 變化함으로서 그후에는 安定的인 成長率이 規則的으로 維持되는」(122) 또는 「成長이 正常狀態가 되는」(123) 決定的 變化의 20~30年間을 意味하고 있다. 로스토우의 離陸假說은 그후의 實證的 研究에 의해서 歷史的 現實과는 相當히 距離가 있다는 것이 一般的으로 밝혀지고 있지만(124) 그것은 近代工業經濟의 特徵으로서의 自己維持的 成長을 가져온 「變化의 決定的 時期」로 認識됨으로 産業革命 認識에 새로운 刺戟을 주었고 많은 研究成果를 낳게 했다. 콜맨은 이와 같은 로스토우의 離陸概念을 받아들이면서 一般的으로 適用될 수 있는 새로운 産業革命 概念을 提示했던 것이다. 폴라드(S. Pollard)는 콜맨의 主張을 「時期에 알맞은 助言」이라고 말하고 産業革命과 關聯된 諸變化의 內容으로서 콜맨이 提示한 概念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諸變化는 「近代 産業資本主義라고 가끔 記述되는 社會的, 産業的, 法的 그리고 其他 諸關係의 새로운 體系에 引導했다」고 指摘하고 있다. (125)

(118)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A Non-Communist Manifesto*, 1960, p. 39.

(119) *Ibid.*, pp. 39-40.

(120) *Ibid.*, p. 40.

(121) *Ibid.*, p. 40.

(122) *Ibid.*, pp. 8-9.

(123) *Ibid.*, p. 36.

(124) 예를 들어 W. W. Rostow(ed.), *The Economics of Take-off into Sustained Growth*, 1963에 收錄되고 있는 S. Kuznets를 비롯한 여러 學者들의 離陸에 관한 實證的 研究論文을 參照할 것.

(125) S. Pollard, "Investment, Consump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Vol. XI, No. 2, 1958, p. 215.

그후 經濟成長史學의 立場에서의 産業革命 概念의 規定은 여러 學者에 의해서 試圖되었다. 經濟成長史學의 立場에서 記述된 標準的인 著書의 하나인 『最初の 産業革命』의 著者 필리스 딘 (Phyllis Deane)은 1965년에 自身の 著書에서 産業革命을 다음과 같은 相互關聯을 가진 諸變化로 認識하고 있다. 즉 그것은 (1) 近代科學과 經驗的 知識을 市場을 위한 生産過程에 廣範하게 體系의으로 適用한다는 것, (2) 家族的 또는 地方的 利用을 위해서 보다도 全國的 또는 國際的 市場을 위한 生産을 指向해서 經濟活動을 特化한다는 것, (3) 人口가 農村에서 都市로 移動한다는 것, (4) 典型的인 生産單位가 擴大되고 非人格化된다는 것, (5) 勞動이 第1次 產品의 生産에서 製造品과 用役生産으로 移動한다는 것, (6) 資本을 集約的으로 廣範하게 利用한다는 것, (7) 土地以外的 生産手段 즉 資本의 所有 또는 그와의 關聯에서 決定되는 새로운 職業階級이 出現한다는 것이다.⁽¹²⁶⁾

한편 하아트웰(R.M. Hartwell)은 最近에 出版한 그의 論文集『産業革命과 經濟成長』에서 經濟史家가 産業革命을 注意깊게 概念 規定을 하지 않았다고 指摘하고 그 主된 理由로서 그들의 研究가 産業革命의 全體의 現象에 關係가 아니라 그의 一部門에 集中되어 왔다는 事實을 들고 있다. 즉 經濟史家는 部門研究는 하면서 綜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産業革命이 經濟成長으로 認識됨으로서 이 問題에 대한 綜合的接近이 不可避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²⁷⁾ 하아트웰은 産業革命의 뜻있는 研究를 위해서는 産業革命을 「工業化를 통한 經濟成長」으로 볼 必要가 있다고 指摘하고 「英國의 産業革命은 工業化의 結果로서 1750年—1850年의 1世紀 동안에 일어난 經濟成長이었으며 그 世紀 동안에 持續的 經濟成長을 結果한 經濟的 構造와 實績에 있어서의 革命이 있었다」⁽¹²⁸⁾고 規定하고 있다. 그는 「産業革命을 經濟成長으로 規定함으로써 經濟史家는 經濟에 있어서 生産性を 增大시키는 諸源泉을 決定하고 構造的 變化(例를 들어 農業에서 工業에로의 資源의 移轉)가 成長에 미친 相對的 貢獻을 評價하고 要素投入을 增大시키고(例를들어 보다 많은 勞動과 土地) 그리고 能率을 增大시킨다는(例를 들어 보다 좋은 組織 改善된 技術 規模의 經濟 및 보다 좋은 人間資本) 問題에 바로 直面하게 되며 또한 産業革命을 經濟成長으로 規定함으로써 史家는 竊동취미의 自己도취와 方向이 잘못된 道德的 憤怒와 함께 目的없이 古文書를 파헤치는 代身に 關聯있는 諸問題를 研究하기 시작한다」⁽¹²⁹⁾고 指摘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른 機會에 英國의 産業革命을 「工業生産의 急速한 上昇運動이 시작된 1780年과 最初の 經濟構造의 大變化가 終結된

(126)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1965, pp. 1-2.

(127) R. M. Hartwell,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1971, pp. 44-6.

(128) *Ibid.*, p. 46.

(129) *Ibid.*, pp. 46-7.

1850年과의 사이에 일어난 英國工業의 諸變化와 그것이 英國經濟 및 社會에 준 衝擊⁽¹³⁰⁾으로 規定하고 그렇게 規定함으로써 産業革命을 經濟發展의 하나의 例 즉 過去 數世紀에 걸쳐서 世界人口의 大部分을 農業生産者로부터 製造品 또는 用役生産者로 轉換한 두두러진 經濟的 諸變化의 最初の 것으로 認識할 수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經濟成長史學에 속하는 學者들도 産業革命 概念의 認識에서는 若干의 ニュ앙스의 差異가 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은 基本的으로는 共通한 立場에서 있다고 보아서 無妨할 것이다. 그것은 産業革命을 一般的으로 近代 工業經濟의 特徵으로서의 持續的 經濟成長을 이룩할 수 있게 할 變革의 決定的 時期 또는 國民經濟의 近代的 變革期로 보고 있다는 점에 서이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오늘날 産業革命 研究는 成長理論과 數量的 分析方法에 뒷받침되면서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V. 結 語

오늘날 産業革命은 工業成長에 基礎를 둔 經濟成長과 그것을 뒷받침한 工業技術의 變革 投資의 擴大 및 産業構造上的 變革이라고 하는 「工業化」(industrialization)一般과 同義語로 使用되는 경우가 많다. 例를 들어 1968년에 刊行된 『國際社會科學 百科辭典』에서는 「産業革命」이 別途의 項目으로 設定되어 있지 않고 「經濟成長」, 「經濟와 社會」, 「工業化」, 「近代化」를 參照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中の 「工業化」라는 項目에서 휴스(J.R.T. Hughes)는 經濟的 側面으로 본 工業化를 「科學的 知識의 着實한 發達 研究 및 利用에서 나타나는 生産體系」라고 規定하고 「그것은 分業과 專門化에 基礎를 두고 있으며 生産에 있어서 機械 化學 그리고 動力과 同時에 組織과 知性的 도움을 利用한다. 18世紀 中葉에 發生한 이와 같은 經濟生活의 組織方法이 가지는 第1의 目的은 單位當 財貨 및 用役生産의 實質費用을 減少시킨다는 것이다.」라고 指摘하고 있다.⁽¹³¹⁾ 한편 그것의 社會的 側面을 執筆한 무어(W.G. Moore)는 嚴密한 意味에서 工業化를 經濟財 및 用役의 生産에 있어서의 無生物의 動力源의 廣範한 利用이라고 規定하고 이와 같이 嚴密하게 規定하더라도 그 概念은 農業과 그리고 交通通信과 같은 用役도 機械化 또는 其他方式의 技術의 合理化를 導入할 수 있는 것이므로 製造業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原料와 用役生産에서 使用된 機械와 器具는 工場製品이므로 製造業이 本質的인 要素가 된다고 指摘하고 있다.

(130) *Ibid.*, p. 111.

(131) J.R.T. Hughes, "Industrialization: Economic Aspects," David L. Sills(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ume 7, 1968, p. 252.

그는 이와 같은 技術을 基準으로 한 工業化 概念이 技術의 決定論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大規模의 能率的인 動力利用을 위해서는 制度上 및 組織上의 先行條件과 그의 對應物이 있다고 指摘하고 嚴密한 意味에서의 工業化가 廣範히 進展되어도 高度로 專門化되고 調整된 勞動力, 貨幣의 交換 및 合理化된 會計制度, 精密測定 및 生産管理技術등이 存在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고 더구나 技術은 社會的 諸結果를 가지는 社會的 產物이라는 점을 強調하고 있다.⁽¹³²⁾ 한편 무어는 「工業化」라는 用語가 보다 넓은 意味에서는 「經濟近代化」라고도 불려진다고 말하고 經濟近代化의 社會的 諸側面을 分析하고 있다.⁽¹³³⁾ 이와 같은 工業化가 産業革命과 等置되어 「産業革命 또는 工業化」라고 一般的으로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어 自身이 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工業化는 그에 對應한 社會經濟의 制度的 또는 構造的變化를 先行條件으로 하거나 또는 그것을 隨伴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工業化」는 體制를 超越한 그리고 오늘날의 先進 工業國에서도 持續되고 있는 過程이라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近代産業主義의 起源은 먼 過去에서 찾아낼 수 있다. 工業化는 長期의 複合的 歷史發展의 結果이며 그리고 그것은 明白히 아직도 長期에 걸친 歷史的 現象으로서의 그의 全行程을 달리지 않았다. 過去의 記錄으로 判斷할때 近代工業은 到達해야 할 過程의 未熟한 始初에 不過한 것 같다」⁽¹³⁴⁾라고 하는 휴스의 指摘은 工業化의 超歷史的 性格을 端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따라서 産業革命을 工業化와 同義語로 使用할때 그것은 完全히 超歷史的 概念이 되어버린다. 이와 같은 立場은 産業革命을 技術革新으로 보고 技術革命이 일어날 때마다 諸産業革命을 檢出함으로써 그것을 無概念的으로 使用하는 立場과 基本的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連續的으로 이루어질 無限한 歷史過程일 것이기 때문이다. 「工業化」 또는 「持續的인 經濟成長」은 두말할 것도 없이 近代 工業社會가 가지는 特徵이다. 그러나 이러한 近代 工業社會에 固有한 特徵的 諸過程과 前工業社會에서 近代的 工業社會에로 轉換하는 決定的 過程이 갖이는 歷史的 意義는 다른 것이다. 産業革命은 어디까지나 前工業社會에서 近代的 工業社會로 轉換하는 決定的 過程 또는 國民經濟의 近代的 變革過程이라고 하는 歷史的 概念으로 認識되어야 한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歷史上 最初의 産業革命은 英國에서 일어났다. 經濟過程에서의 「革命」은 政治過程에서의 그것과는 달리 連續的인 過程에서 漸進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産業革命을 論할 때에는 이와같은 側面이 充分히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132) W.G. Moore, "Industrialization: Social Aspects," *Ibid.*, pp. 263-4.

(133) *Ibid.*, pp. 264ff.

(134) Hughes, *Ibid.*, p. 252.

古典的 産業革命 概念의 創始者 토인비와 連續說의 立場에서 새로운 産業革命 概念을 構成하려고 한 애슈톤은 다같이 英國의 産業革命期를 1760年—1830年으로 보았으며 一般的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져 왔다. 이 期間은 조지 3世(George III) 治世(1760年—1820年) 및 조지 4世(George IV) 治世(1820年—1830年)에 該當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技術的 變革을 基準으로 해서 産業革命期를 遡及 認識하려고 하는 캐리스 윌슨이라든가 네프같은 경우를 차지하더라도 그 時期를 前後로 擴大認識하려고 하는 傾向이 强하다. 例를 들어 화이트헤드(D. Whitehead)는 18世紀 英國의 經濟發展에 있어서 轉換點을 認知한다는 것은 困難할 뿐만 아니라 轉換點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18世紀 中葉 以後에 나타나는 發展을 적어도 18世紀 初에까지 遡及해서 認識하려고 試圖하고 있다.⁽¹³⁵⁾ 그러나 오늘날 英國의 産業革命期는 一般的으로 18世紀 中葉에서 19世紀 中葉에 이르기까지의 約 1世紀間으로 생각되고 있다.⁽¹³⁶⁾ 1世紀間을 통해서 遂行된 英國의 産業革命은 「革命」답지 않은 革命의 過程이었던 것이며 그것이 그렇게 長期間걸렸던 것은 그것이 歷史上 最初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英國의 産業革命이 歷史上 最初의 것이었다는 것은 近代的 工業社會에 관한 모던이 이미 있어서 그에 到達하려고 하는 經濟主體의 意識의인 努力에 의해서 그것이 遂行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經驗的 過程에서 自生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것은 先行한 歷史過程에서의 必要 諸條件의 成熟을 前提로 하고 自由放任(laissez faire)體制下에서 民間 經濟主體가 그때그때의 經濟的 狀況에 積極的으로 對應해나가는 過程에서 遂行된 것이다. 産業革命이 커다란 歷史的 轉換期였던 만큼 그 過程에서 社會的 摩擦이 隨伴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더구나 그것은 英國의 産業革命이 經驗的 試行錯誤의 過程에서 遂行되었던 만큼 매우 크게 나타날 수도 있었다. 事實 國家의 社會 諸立法에 의한 社會的 摩擦의 輕減 또는 解消가 試圖되는 것은 1830年代 以後의 일이었으며 그때까지는 그것은 基本的으로 自由放任 體制에 맡겨졌었다. 이 側面에 관한 論者들의 評價의 差가 바로 悲觀論과 樂觀論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自由放任 體制下에서도 社會的 摩擦이 制禦될 수 있는 程度 以上으로 擴大되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長期間에 걸쳐서 漸進的으로 나타나고 또한 自體的으로 解決되어 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英國의 産業革命은 歷史上 最初의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經驗的 過程에서 自生的으로 遂行된 매우 유익한 것이며 그러한 意味에서 그것은 古典的 産業革命이었던 것이다.

英國에서 일어난 産業革命은 諸外國에 波及되어 19世紀 前半期에는 佛蘭西 독일 美國 그리고 19世紀 後半期에는 日本 및 러시아등 諸國에서 各各 産業革命을 일으켰으며 20世紀의

(135) D. Whitehead, "The English Industrial Revolution as an Example of Growth," in R.M. Hartwell(ed.), *The Industrial Revolution*, 1970.

(136) Phyllis Deane,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pp. 1-4. Amintore Fanfani, "Consideration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Marcelle Kooy (ed.), *Studies in Economics and Economic History: Essays in honour of Professor H.M. Robertson* 1972, p. 219.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것은 諸開發途上國에서 進行되고 있다. 이들 後發諸國의 産業革命은 19世紀의 경우에는 英國의 産業革命을 그리고 20世紀의 경우에는 高度로 工業化가 進展된 近代 工業社會를 歷史的 前提로 해서 遂行되었거나 또는 遂行되고 있다. 그 경우 英國에서와는 달리 自生的 發展의 諸條件이 未成熟한 狀態에서 産業革命을 遂行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國家에 따라서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一般的으로 國家라든가 또는 그에 支援된 民間 經濟主體가 위로 부터 그것을 誘導하는 傾向이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거셴크론(Alexander Gerschenkron)은 後進性의 程度에 따라서 工業化를 誘導하는 經濟主體는 國家→銀行→民間 企業家라고 하는 繼起的 變化過程을 거친다고 指摘하고 있다.⁽¹³⁷⁾ 그 경우 産業革命을 위한 先行 諸條件의 造成 技術革新 資本供給등이 위로부터 意識的으로 推進되는 만큼 後發國의 産業革命은 英國의 그것보다도 急速히 따라서 보다 짧은 期間內에 集中的으로 遂行되게 된다. 이와 같이 比較的 짧은 期間에 遂行되는 後發國의 産業革命의 過程에서는 轉換期에 隨伴되는 社會的 摩擦도 보다 激化된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경우 國家를 비롯한 經濟主體의 意識的 努力이 또한 必要하게 된다. 이와 같은 一般的 性格은 産業革命이 그것이 遂行된 나라의 社會經濟的 條件의 差異에 따라서 패턴을 달리하면서 遂行된다는 것을 排除하는 것은 아니다.

(137) Alexander Gerschenk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 1962. 한편 폴라드는 産業革命을 (1) 先驅國으로서의 英國의 경우, (2) 주로 民間企業에 의해서 發展한 19世紀 및 20世紀初의 模倣國, (3) 國家의 計劃的인 活動에 의해서 工業化過程이 始動되고 加速化되는 現代의 模倣國이라고 하는 類型으로 3區分하고 있다. Pollard, "Investment, Consumption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op. cit.*, p. 219.